서울大同窓會報

동창회 지표 • 참 여 • 협 력 • 영 광

발 행 인 金 在 淳
편 집 인 鄭 宗 澤

발 행 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121-04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 702-2233~5 · FAX:703-0755
인 쇄 처 한길기획

은행지로번호 7500875
대체구좌 010017-31-0621565

제249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8년 12월 15일 【1】

「서울대인 자존심 회복의 旗手」
李基俊 신임 총장

(커버스토리 14면)

관삭춘추

신임 李基俊 서울대 총장은 그의 화려한 학문적 경력과 탁월한 경영능력으로 볼 때 정체되어 있는 서울대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분으로 기대할 만하다.

취임 제1성으로 『서울대인의 자존심을 되찾겠다』고 단언한 것도 우리의 공감을 살 만하다. 대학의 대학이며 민족의 대학인 서울대는 그동안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했다기 보다는 스스로의 위치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채 보수적인 틀 속에서 안주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3년여 동안에 총장이 두 분이나 연이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는 사실이 바로 비약적인 도약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고, 이것은 또한 서울대인의 자존심을 훼손한 이유가 되었다. 한마디로 리더십의 부재가 끊임없는 발전을 지연시킬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李총장이 되도록이면 주어진 임기를 다 채우는 총장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사실 서울대 총장이 임기중에 정부 요직으로 발탁되어 가는 것은 대학의 발전과 자존심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정부와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역량을 오히려 임기중에 대학의 발전을 위해 쏟아 붓는 것이 진정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는 일이 될 것이다.

더욱이 요즘에는 모든 대학의 총장들이 무슨 세일즈맨이 되어 돈을 끌어 들이는 일에 몰두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것 또한 서울대 총장이 본받을 일이 아니다. 서울대 총장은 서울대의 중심이며 큰 어른이다. 고매한 인격의 교육자이다. 따라서 관가의 분위기에 너무 휩쓸리는 자세를 지녀서는 안된다. 한낱 관리가 서울대 총장의 거취를 언급하는 일이 다반사인 것도 알고 보면 그동안 서울대 총장의 권위가 얼마나 추락했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대학의 중심이 되라

총장의 자존심이 회복되어야 서울대인의 자존심이 회복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대인 모두가 우리의 총장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힘을 한데 모아 주어야 한다. 반면에 총장은 대학의 중심에 우뚝 서서 교수, 직원, 학생들로 구성된 서울대라는 공동체를 획기적으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존중해야 한다. 서울대의 현안으로 되어 있는 대학구조조정안이나 교육체계 개편안 등도 여론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조화로운 합의를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

특히 동창회와의 연대를 통해 21세기를 향한 무궁한 발전의 기폭제를 창조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주기 바란다. 일반 사립대학들이 동창회와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얼마나 큰 힘을 얻고 있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20여만명의 동창회 회원들은 李총장에게 지혜와 용기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대학의 발전을 위한 길에 총장과 동창회가 손을 잡고 함께 나선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李총장의 앞날에 행운과 큰 성취가 있기를 빌어마지 않는다. 〈均〉

만든 사람 논설위원 : 金榮國, 孫一根, 金哲洙, 金昌悅, 朴世熙, 林炯斗, 崔靑林, 李東和, 李炯均, 南仲九, 宋鎭赫, 李年憲, 洪性萬, 丘月煥, 李成俊, 安炳璨, 李元馥, 柳根粲 편집장 : 安興燮 기자 : 李美連, 金有信 광고부장 : 金千鶴

98년을 보내면서

의미 있는 삶을 설계해 봅시다

일본지부 奉光玉(58년 齒大卒)회장

모국을 비롯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동문 여러분.

모교가 개교한지도 반세기가 지났으니 강산도 벌써 다섯번이나 바뀐 셈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모교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많은 동문들이 세계 각국에서 모교와 모국의 자랑스러운 이름을 빛내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육중한 지축이 삼백예순 다섯번을 팔랑개비처럼 돌아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끝은 처음으로 연결되듯 우리의 세상은 또다른 새해를 시작하기 위해 달리고 있습니다. 새해에 떠오르는 저 붉은 태양처럼 1999년은 모교와 총동창회, 그리고 동문과 가족여러분에게 복되고 알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의미있는 삶을 설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본지부는 초대회장이셨던 朴仲弘(現고문)동문께서 훌륭히 이끌어 주신 덕분으로 여러 가지로 부족한 필자가 회장의 중책을 맡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지부는 지난 8월 1일 창립총회를 계기로 여러 해외지부와의 교류와 친목을 나눌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입니다. 또한 각종 행사를 통해 동문간의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자칫 해외생활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동문간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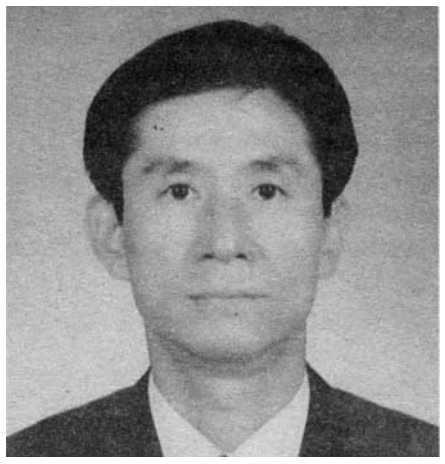
특히 신년회와 봄·가을 친목 골프대회를 통해 선·후배 동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왔습니다. 지난 11월 23일 군마현 소재 군마CC에서 열린 제1회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에는 金奭圭(62년 文理大卒·주일대사)동문을 비롯 총 40여명의 동문들이 참가, 모처럼 만나 선·후배간에 이야기꽃을 피우며 즐거운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총동창회에서 우승배를 기증해준 덕분에 이번 골프대회가 더욱 의미있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일본지부의 올 한해를 반성하고 미비했던 점이나, 고쳐야할 사항들을 돌이켜보며 1999년에는 회원 상호간의 교류확대 및 모교와 총동창회에 지원확대 등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다가오는 1999년, 창조주의 평안과 지혜가 우리 모교와 총동창회 그리고 모든 동문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축원하며, 소원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넓은 시야·여유가 필요합니다

부천지부 朴敬鎬(72년 工大卒)회장



언제나 한해를 마감하면서 하는 말이지만 금년은 多事多難이란 단어의 의미가 어느 때보다 실감난 한 해였습니다.

나라의 살림이 존폐의 위기에 직면했던 연초, 단기부채의 상환연장에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살인적인 이자에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며 또한 기업 및 각 기관의 구조조정에 의해 하루 아침에 거리로 내몰리다시피 하는 현실에 우리 모두는 아연실색했습니다.

다행히 수출은 그 기세가 꺾이기는 했어도 한국민의 마지막 저력을 발휘하듯 세계시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유지하고, 수입은 거품의 제거와 함께 곤두박질해 위기의 원인이었던 해외수지를 꾸준히 개선, 이제 일년만에 외국에서도 신뢰의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는 느낌입니다.

금년에는 또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기상이변의 해였습니다. 초여름부터 채 자라기도 전에 코스모스가 피었으며 여름의 무더움도 별로 모르고 가을 같은 날씨에 국지적 집중호우로 많은 사상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근래 드물게 많은 물을 주어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한 해이기도 합니다.

금년은 우리의 모교 또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입시경쟁의 주범, 한국 인재의 독점, 사회에서 학연의 폐해 등등 이 모든 지적은 동문들이나 대학이 겸허히 받아들여 성실히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지부는 금년에 처음으로 元惠榮(71년 師大入)동문이 부천시장에 당선되어 부실해진 부천지역 경제일으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천지부는 1990년 7월에 창립돼 회원의 경조, 간행사업, 모교의 장학사업에 기여 및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펼쳐왔으며 부천에 처음 발을 딛는 동문들에게는 훈훈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으며 회원 상호간 교제의 폭을 넓히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천에 직장을 가졌거나 또는 주거를 하는 동문수는 약 2백40여명 정도입니다. 새해에는 이상의 열거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동문들의 친목과 건강을 위하여 바둑, 등산, 골프 등의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자칫 위축되기 쉬우나 보다 넓은 시야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동문들과 우정을 나누면서 새로운 희망과 각오를 다지는 소중한 연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해가 가기전에
연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母校 發展이 祖國의 發展

다사다난하고 어려웠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 이 때, 동문님의 건안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총동창회 '98년도 연회비 수납을 위해 마지막 지로를 지난 11월 20일 동문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동문 한분, 한분의 소중한 정성이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의 밑거름이 됩니다.

부디 회보 구독료라도 납부하신다는 마음으로 대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서 울 대 총 동 창 회 사 무 처

느티나무광장

林 炯 斗 前SBS제작본부장

준비하는 자세 필요하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새로운 문구가 등장해 눈길을 끌은 일이 있다.

「준비」라는 단어가 새로웠던 것은 지난 수십년 동안 우리 사회는 모든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치밀한 계획이나 단계를 생략한 채 마무리되어 부실한 결과에 낭패를 당한 일을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작년에 IMF프로그램에 들어서기전까지 우리 경제는 세심한 준비도 없이 막연한 기대와 자신감속에서 안주하다가 기습당한 꼴이 되었다.

이제 안이한 방법으로는 비단 경제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도 세계 무대에 통하지 않아 생존할 수 없는 시대에 와있다. 한때 선진국을 향한 장미빛 청사진을 집어던지고 이 절대절명의 시기에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아픈 경험은 값진 것이다. 우리가 겪었던 크고 작은 경험에서 새로운 시작을 배워야 한다.

1세기전에도 좋은 예가 있다. 구한말 우리가 쇄국의 길로 들어서 외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몰락하고 있던 시기에 이웃 일본은 문명개화의 열풍이 거세게 불어닥쳤다.

그러나 메이지유신은 이미 16세기에 작은 도시 「나가사끼」와 「네덜란드」인의 만남에서 준비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그 시기에 네덜란드학문인 蘭學의 연구붐이 일고 네덜란드어를 구사할 줄 아는 일본인이 100명이 넘었으니 서양문물을 흡수해서 융화시키는 능력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번 한국을 방문했던 「로만 헤이쵸크」 독일 대통령도 인터뷰에서 통일을 준비하라는 말을 강조했다.

『통일은 예기치 않을 때 오기 때문에 짧은 시기에 많은 것을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중요한 것은 국민 모두의 정신적 준비』

지금 우리는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하고 만연된 부패의 사슬도 끊어야 하고, 사회 곳곳에서 발목을 잡는 모순도 개혁해야 한다.

한때 세계인의 눈길을 끌었던 「코리아」의 번영을 되찾기 위해서는 모두의 희생정신과 근면을 다시 추스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일에 착실하게 준비하는 자세를 체질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고통과 좌절로 가득 찬 어둠의 긴 터널을 빠져나와 성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날을 맞이해야 한다.

〈본보 논설위원〉

관악캠퍼스 情들이기

출신대학·졸업년도별로 방문하자

동문칼럼

尹 銘 重 (57년 文理大卒) 한일교류협회장

거기서 한번도 배워본 일이 없는 필자에게 모교의 관악캠퍼스란 언제나 낯선 마을처럼 느껴진다.

별로 가볼 일도 없고, 가봤댔자 누가 반갑게 맞아줄 리도 없다. 무엇보다도 거기 어딘가에 우리의 대학시절을 되살리게 할 추억거리가 묻혀있지 않기에 정이 들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도 대학시절을 회상할 때는 동숭동거리의 「별장」다방이나 「대학」다방이 떠오르고, 「생과부집」의 막걸리 맛이 생각난다. 또 모교를 생각할 때는 옛 문리대캠퍼스의 「라일락」 향기와 노랗게 물들어 떨어지던 은행나무 잎새들이 눈가에 스친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 묻혀있는 모교는 웅장한 관악산 기슭이 아니고 나지막한 낙산 기슭이다.

흩어져 있는 모교의 향수

이것은 어쩌면 「관악캠퍼스 시대」이전에 졸업했던 동문들이 비슷하게 느끼고 있는 감정일지도 모른다. 단과대학별로 여기 저기 흩어져 있었지만 工大는 공대대로, 商大는 상대대로, 農大는 농대대로 다 그런 추억거리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꿈 많은 학창시절을 보냈던 모교는 언제나 마음의 고향이다. 그러나 실제와 다른 마음의 고향은 오히려 허전할 때가 있다.

그래서 필자는 동창회에 한가지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관악캠퍼스에서 공부하지 않았던 동문들을 위해 「母校 情들이기」행사를 벌이는 일이다.

거창한 「홈커밍 데이」를 하라는 말이 아니다. 한 달에 한번쯤 날짜를 정해서 동문들을 초청한다. 이번 달은 어느 대학, 다음 달은 어느 대학 식으로 짜면 일년에 한번쯤 가볼 수가 있을 것이다. 또 57년 졸업생은 해마다 5월 7일에, 68년 졸업생은 6월 8일에 초청하는 방법도 있다.

타향도 정들면 고향인데

모교 정문 앞에서 「몇 해 졸업, 아무개」란 명찰을 유치원 어린이처럼 크게 달아주고 후배들이 안내를 맡아 『여기는 도서관』, 『여기는 무슨 대학』 식으로 건물을 설명하면 된다. 참가비는 한 사람 앞에 돈 만원쯤 받아서 점심때는 교수회관 같은데서 설렁탕이나 만두국 같은 음식을 대접하고 식권을 배부해서 커피와 인삼차도 들게 한다. 방문기념품으로는 참가자의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한 통씩 떼어서 「모교 방문 기념」스탬프를 찍어 주면 유쾌한 추억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처럼 느껴지듯이 다니지 않았던 캠퍼스도 해마다 한번씩 찾아가다보면 그런대로 정도 들게되고 소식을 모르던 동문들의 얼굴도 만나게 되는 기쁨도 있을 것이다.

지부순례

뉴잉글랜드 지부

회원 2백20명, 2세 자녀 짝짓기 등 큰 성과

글 : 李義寅(72년 工大卒)출판간사사

미국 문화와 역사의 본 고장인 뉴잉글랜드 지역은 미국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한국의 신의주와 같은 위도상에 있으며, 한국과 기후가 매우 비슷하다.

교육의 도시라고 하는 보스턴을 중심으로 한국에도 잘 알려진 MIT, Harvard 대학을 선두로 2백개 이상의 크고 작은 사립 및 국립대학과 Phillips Academy 등의 명문 사립고등학교 등이 근교에 산재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특성상 의대 및 공대 출신 동문들이 여러곳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모교 의대 동문들의 모임은 매년 있었으나 오래 전부터 이 지역에 전체 동문들의 모임이 있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오던 바 지난 97년 봄 13개 단과대학의 동문 약 40명이 모여 창립발기회를 열고 반년간의 준비작업을 거쳐 약 2백명의 동문 명단을 확보한 후 97년 9월말 총회를 개최함으로써 대장정의 첫발을 내딛었다.

초대 회장에는 朴京民(59년 醫大卒)동문, 총무에는 權彝德(72년 工大卒)동문이 선출됐으며, 약 30명의 이사와 간사가 임명되어 잘 짜여진 동창회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본회 이사회는 타 단체처럼 흔히 이름만 걸어놓고 뒷전에서 구경만 하는 이사회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이사회가 되기 위해 다섯개의 소위원회를 조직, 위원회별로 사업을 계획, 추진해나가고 있다. 그 예로 장학위원회에서는 4명의 장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또한 장학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친선골프대회를 5월중에, 짝짓기 위원회에서는 2세들을 포함한 동문가족 야유회를 7월중에, 2세지원위원회에서는 여러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2세 학생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자선음악회를 10월중에 개최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위원회에서는 아시아 소수민족이나 한국참전용사 돕기 운동을, 인력자원위원회에서는 인력자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로 계획했다.

그동안 우리 동창회의 임원이나 이사들은 계획된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두차례의 임원·이사 연석회의와 다수의 임원회 및 이사회로 모여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며 아이디어를 짜내면서, 한마음으로 함께 일하며 살아있는 동창회임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

그 결과 5월말에 뉴잉글랜드 이사회와 공동주최로 개최된 제1차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는 40명 이상의 동문 및 외부인사들이 참석하여 성공리에 마쳤으며, 2천불이 넘는 장학기금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 7월말에는 2세 자녀들을 포함한 많은 동문 가족들이 Hopkinton공원에 야유회로 모여 친교와 여흥으로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했다.

특히 서울에서 열린 총동창회 행사에 참석했던 朴회장의 건의로 총동창회에서 동창회기를 제작, 재미 각 지부 동창회에 기증한 것은 각 지부 동창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하겠다.

현재 뉴잉글랜드 지부에는 1934년 의과대학에 입학한 金永濟동문부터 1992년에 입학한 동문까지 약 2백20명의 회원이 있으며, 단과대학별 분포를 보면, 의과대학이 55명으로 제일 많고 다음이 50명의 공과대학, 그 다음이 음악대학(20명)이며, 문리과대학과 간호대학(각 15명), 사범대학과 약학대학(각 10명)의 순으로 되어 있다.

앞줄 우측에서 네번째 朴회장, 둘째줄 우측에서 세번째 필자.

서울대 가족

李相得 국회의원

1남2녀·큰 사위 모두 동문, 예의 깍듯

고도의 경제성장이 한창이었던 1976년 당시 41세라는 젊은 나이에 코오롱 사장으로 승진해 재계에 화제를 불러 일으켰던 인물인 李相得(61년 商大卒·국회의원)동문. 李동문은 모교를 졸업한 1961년 코오롱의 말단 사원으로 입사해 15년만에 사장으로 승진, 이후 15년동안 코오롱그룹의 전문 경영인으로 일해왔다. 또한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14대, 15대에 이르기까지 10여년의 의정활동중 국회 재경위원장을 비롯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돈·명예보다 가족을 중시

성공한 인생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李동문에게 가장 자랑스럽고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의외로 李동문은 돈도 명예도 화려한 정치 경력도 아닌 바로 가족이라고 말한다. 1남 2녀의 자녀를 모두 모교에 입학시켜 주위의 부러움을 한껏 사기도 했다는 李동문은 어엿한 사회인으로 제 몫을 다하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한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 예비고사 성적이 문과 계열에서만 전국 2백위안에 들었다는 장남 李知炯(90년 法大卒)동문이 모교에 입학할 당시 집안에서 작은 갈등이 생겼다. 아버지인 李동문은 자신의 뒤를 잇는 전문 경영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경제학과를 원했지만 정작 李知炯동문은 법대를 지원한 것이다. 그러나 두번의 고시에서의 좌절로 고민중이었던 李知炯동문은 아버지의 권유로 미국으로 유학, 그곳에서 MBA를 마쳤다. 드디어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발견한 李知炯동문은 미국에서 CPA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지금은 삼성전자 해외M&A팀장으로 아버지 못지 않은 전문 경영인의 소질을 십분 발휘하고 있다.

또한 장녀 李盛恩(92년 社會大卒)동문의 경우 具本天(87년 社會大卒·KDI연구원)동문과의 결혼을 통해 또하나의 동문 가족을 이뤄 주위를 흐뭇하게 했다. 모교에서 바이올린과 대학원에서 작곡이론을 전공한 차녀 李知恩(94년 音大卒)동문은 결혼과 동시에 유학을 떠나 아버지인 李동문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다고.

차녀 결혼하자 유학 섭섭

예의 바르기로 소문난 李동문 가족들은 지금도 아파트 경비원에게 인사를 하고 다니는 것이 습관이라고 한다. 李동문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웃어른에 대한 인사나 말투, 상대방에 대한 배려에 관해 엄격하게 가르쳤다. 남에게 물건을 건낼 때는 두손으로 공손히 들여야하며, 길거리에 함부로 휴지나 껌을 버려서도 안되고, 공공장소에서는 예의를 지켜야 한다 등 삼남매가 지켜야할 예의범절이 너무 많았다. 한번은 차녀인 李知恩동문이 엄격한 아버지에 반발해 『아버지는 제가 수녀가 되길 원하세요』라고 말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제는 삼남매 모두 이러한 엄격함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 할 수 있었다며 오히려 李동문에게 감사해 한다고.

〈美〉

앞줄 좌로부터 시계방향으로 李의원, 具本天·李盛恩동문, 李知恩부부, 李知炯동문

건강을 지킵시다

호흡곤란 동반하는 천식

黃敬植(63년 文理大卒)한의원 원장

喘息은 갑자기 숨이 차면서 심한 호흡곤란이 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열이 없고 가래나 기침도 많지 않으면서 주로 숨이 차는 것이 문제가 되는 병이다. 천식은 어른은 물론 소아들에게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천식이 있으면 잠을 잘 때 목에서 색색거리는 소리가 나고 그르렁 그르렁하면서 가래 끓는 소리도 난다. 그리고 아주 심해지면 가슴이나 어깨가 들썩들썩한다. 또한 천식이 있으면 계단이나 언덕을 오를 때 숨이 차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평지에서도 조금만 빨리 걷다 보면 숨이 차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밤에 자다가 천식이 발작되면 드러눕거나 일어서거나 앉아도 안정이 안되면서 곧 숨이 막혀서 죽을 것만 같을 때도 종종 있게 된다. 천식이 오면 얼굴은 창백해지고 식은땀을 흘리고 혹은 실신하는 일도 있다. 그리고 천식발작은 주로 한밤중이나 새벽녘에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야간에 응급실로 실려가서 산소 호흡기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도 생긴다.

한의학에서 천식을 치료할 때는 폐를 다스려서 폐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치료법을 사용한다. 호흡곤란이 와서 숨이 차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겉으로 나타난 하나의 증상이지 그 자체가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천식이 어떻게 해서 발병하는 것

인지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치료의 지름길이 된다.

대개 아이들은 폐렴과 같은 고열로 인해서 어느 정도 폐가 손상을 입은 후에 주로 천식이 발생하게 되고 어른들은 선천적으로 폐가 약하거나 후천적으로는 攝生을 잘못해서 이미 폐가 약간은 쇠약해진 상태에서 감기에 걸려 기침을 하다가 오래 지속이 되면서 천식이 올 때가 많다.

그러므로 천식의 근본적인 치료는 이미 약화된 폐의 기능이 정상이 되도록 하는데에 목표를 두어야 되는 것이다. 폐가 다시 튼튼하게 되면 천식증상은 조금씩 그리고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천식은 재발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단 치료가 되었다 해도 앞으로 1~2년간은 환절기 때마다 약을 1~2제 정도씩 미리 복용해 두는 것도 현명한 일이다.

천식은 감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옷을 너무 가볍게 입지 말 것이며 찬 것도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하고 특히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한다.

추억의 窓

깡통차고 지게 짊어진 각설이생활
국선 입선했으나 자퇴 강요받기도

張善栢(57년 美大卒)동덕여대 예술대학장

부산 송도의 미술대학을 찾아 판자촌 언덕을 오르자 긴머리에 떡칠한 물감, 탈색군복에 깡통(기름통)차고 보따리(화구)와 지게(이젤)를 짊어진 각설이 떼를 만났다. 바로 선배들이었다.

깡통차려고 미술대학엘 가느냐 호통치시던 아버님이 떠올라, 그 길로 이발소에 가 스포츠형 머리로 잘랐고 오늘까지 긴 머리를 기르지 않았다.

바람이 스며드는 판자교실이었으나 어려움을 이기고 교직을 떠나 전쟁통에 학업을 할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 마냥 행복했다.

수복후 동숭동 교정은 공장의 일부를 미대, 법대, 문리대가 나누어 썼다.

그것도 햇빛이 드는 이층으로의 이사과정에서 법대생들의 탈법과 폭력에 쫓겨 뒷방으로 밀려났다. 요사이 탈법의 무법자들이 줄줄이 쇠고랑 찬 모습에서 지난 날이 문득 떠오른다.

여학생이 세명밖에 없던 교실에 나체 모델을 처음 세웠을 때, 민망해 교실엘 못들어오던 그녀들, 이왕이면 젊은 남자를 쓰겠다 아우성치는 여학생들, 창틈에 매달려 맨몸의 여인을 보겠다고 밀고 당기던 촌스럽던 그들도 백발의 황혼이 겠지….

교정이 없어 뒷뜰의 공장 굴뚝에 올라 재롱을 부리며 협기를 달래던 친구나, 창경궁 동물원 짐승들, 고궁의 단청과 수림은 우리들의 꿈을 키워준 휴식과 사색의 실습현장이었다. 「스승의 그림자라도 밟을 세라」 조심했고, 선비처럼 곧고 미덥던 교수님들, 점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살던 세월과 요사이 늙은 교수가 차안에서 밀리고 채여도 눈을 돌리고, 실리따라 움직이는 놀라운 변신, 싫도록 먹고 찐살을 뺀다고 굶어 빈혈을 앓고.

1학년 때 가을국전에 서양화 3점이 입선됐다. 그러나 3학년이 되야 출품자격을 준다는 규정을 어겼다고해서 「자퇴」를 강요받았고, 반성의 「서약서」를 쓰고 겨우 양해되었다.

덕분에 그림이 팔려 등록금을 마련하는 행운을 잡았고, 졸업때까지 장학금을 받았던 일이 있다.

「가르치는 것은 배우는 일」이란 은사님 설득에 사양함을 거두고 후배 앞에 선 20대 강사시절과 이 당시 「천재는 학교가 필요없다. 학교에 다닌다는 자체가 천재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열을 토했고, 10년이 지난 후 교수가 된 한 후배의 「첫 시간의 밑천」이란 필자에게서 배웠던 강의 내용이다란 말에 박수를 보내며, 가슴이 뿌듯했던 기억이 지금도 난다.

이밖에 그 시절 「전임을 시켜라」 등 갖은 아양과 협박도 부족해, 작당해 은사를 내모는 못볼 일도 봤다.

공룡처럼 부풀은 모교 교수의 97%가 모교 출신이라는 유례없는 원시적 근친교배의 기형아의 산실, 오늘을 자각하고 어제를 청산, 새롭게 태어나길 빌며.

57년 2월 졸업식 기념촬영

총동창회 인터넷 홈페이지 개통

「www.snua.or.kr」로 접속하세요

본회는 98년 12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nua.or.kr)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동창회와 동문, 동문상호간을 맺어주는 가교역할을 하게 될 인터넷 홈페이지는 지난 97년 8월 (주)블루넷(대표 張瀅鎭·86년 師大卒)과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인터넷 사이트 구축」에 대한 계약을 체결, 여러 차례의 준비 작업을 끝내고 시범운영을 거친 바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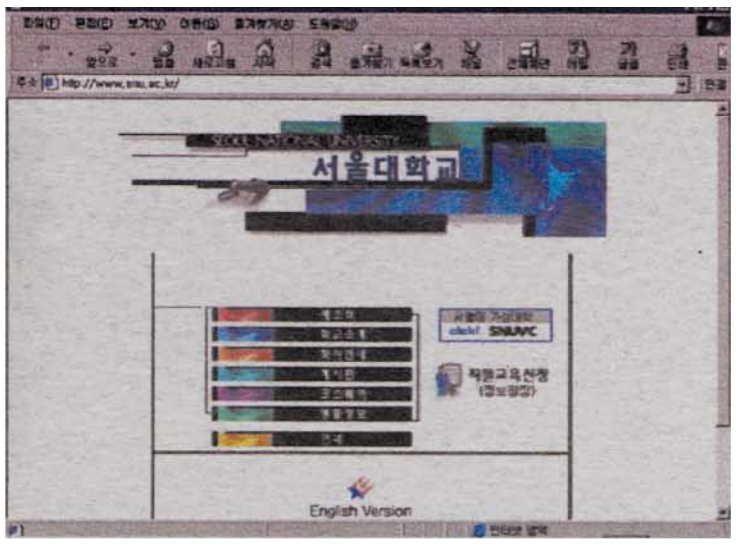
◎홈페이지 주요 메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창회 소개 : 동창회의 목표와 활동 계획, 회장 인사말, 회칙 등
2. 동창회 사업 : 동창회관 이용, 국민신용카드사업, 특지장학회 안내 등
3. 동창회 조직 : 동창회, 관악회, 동창회보, 각 단과대학(원)동창회, 직능 및 지부 임원 등
4. 동문 한마당 : 동문 행사, 공지 사항, 동창회보 등 (현재 보완작업 중)
5. 자료실 : 모교 상징마크·교가, 동창회 상징마크·회가 등
6. 자유 게시판 : 동문 의견 개진 코너
7. 임원 검색 : 동창회 이사 이상 임원진 리스트(차후 일반 회원 검색이 가능토록 추진할 계획)
8. 사이트 링크 : 모교(www.snu.ac.kr) 및 재미동창회(www.snuaa.org)와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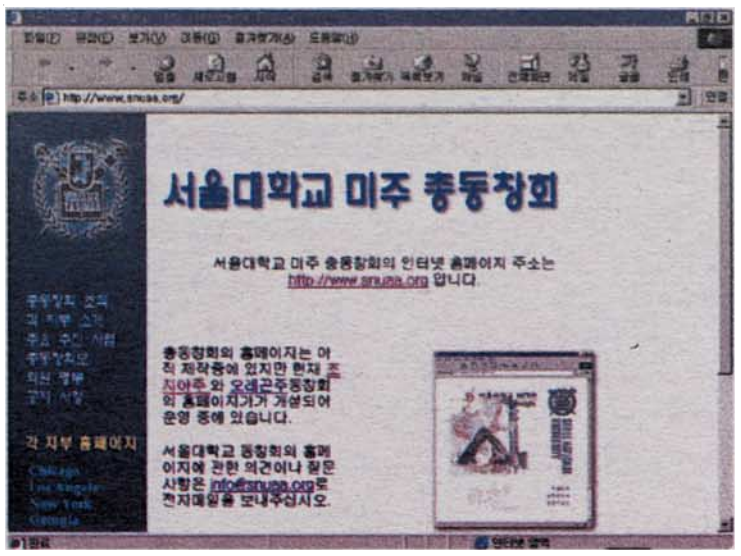
이제 동창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동창회 소식 및 동문의 근황 등을 빠르고 쉽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회는 홈페이지를 더욱 보강해 내용을 충실히 할 방침입니다. 홈페이지에 대한 의견이나 동창회와 동창회보에 알리고 싶은 사항은 자유 게시판 및 E-Mail서비스를 이용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회원부(snua@snua.or.kr), 편집부(edit@snua.or.kr)



서울대학교 인터넷 사이트



재미동창회 인터넷 사이트

99년 「포켓용 DIARY」를 드립니다.

본회는 지난 11월 17일까지 동창회 연회비를 납부해주신 동문에게 1차로 「포켓용 DIARY」를 발송해 드렸습니다.

11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비납부자에게는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DIARY를 별도로 원하시는 동문은 1부당 국내 5천원, 해외 5달러(발송료 포함)를 보내주시면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서 울 대 총 동 창 회 사 무 처

미술작품

吳 昌 圭 作

「방배동 새벽」, 194×130.3㎝, 캔버스에 아크릴릭, 1998.

(작가 약력)

△95년 모교 미대 서양화과 졸업
△97년 모교 대학원 수료
△95년 서울대·동경예대 교류전
△96년 제1회 판의 언어전, 서울대·동경예대 교류전
△97년 제1회 개인전, 차세대 유망작가전, 시흥경제신문 초대 26인전, 제2회 판의 언어전
△98년 현대판화의 조명전, 제2회 개인전

동창회보는 동문 여러분의 것입니다.

동문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우) 121-040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8-2 서울대총동창회 편집부
전화 : 702-2233 FAX : 703-0755 E-Mail : edit@ snua.or.kr

주 요 목 차

서울대 가족 ····· 4면
李相得 국회의원
추억의 창 ····· 4면
張善栢 동덕여대 예술대 학장
뜨 락 ····· 9면
李叔妍·崔銀美동문
동문을 찾아서 ····· 14면
모교 신임 李基俊총장
화제의 동문 ····· 15면
韓明善 대한야구협회 심판
기업탐방 ····· 15면
한국 쓰리콤

'98년 각 단과대학(원)동창회 활동보고

다채로운 행사로 동문 참여 높아져

사회과학대학 및 도시·환경 고위정책과정 동창회 창립

98년을 마감하고 이제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고 있는 각 단과대학(원)동창회의 올해 활동을 주요 내용별로 간략히 소개한다.

사회과학대학동창회

1 주요행사

▲창립총회 : 5월 30일 모교 사회대 교수회의실 ①회칙 제정 및 임원 선출 ②초대 회장에 崔丁云(79년卒·모교 교수)동문, 수석부회장에 李祐宰(76년 商大卒·시일무역 대표)동문 선출 ③부회장에 河永求·金 日·鄭汶鎬·盧圭亨·崔慶鎭·姜岩求·梁承穆 동문, 감사에 尹仁泰·鄭鎭星동문 선출 ④모교 愼鏞廈학장이 기증한 기념 표지석 제막식 거행

사회과학대학동창회 창립총회

자연과학대학동창회

1 주요행사

▲이사회 : 6월 30일 모교 교수회관 ①신임 尹沃榮(61년卒·금성초등학교장)회장 추인 ②수석부회장에 沈相哲(62년卒·과학기술원 교수)동문, 사업이사에 成耆重동문, 재무이사에 黃仁吉동문, 총무이사에 金明煥동문 선임 ③감사에 金秀子·黃 源동문 선출 ④동문 주소록 완비 및 취미모임 만들기 등 동창회 활성화 방안 논의

가정대학동창회

1 주요행사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 : 1월 20일 모교 교수회관 ①모교 소식지 및 장학증서 전달 ②개교 50주년 발전기금 모금 현황 보고 ③신입회원 소개 및 임원진 인사

2 장학사업

▲1·2학기 장학금 : 4명에게 4백13만원 전달

간호대학동창회

1 주요행사

▲간호대 발전기금 모금을 위한 바자회 : 9월 17일~19일 기숙사 라운지 및 앞뜰 ①56년, 66년, 70년 졸업동기회에서 국수, 식탁보, 참기름 등을 단체 기증 ②楊銀淑회장외 32명의 동문이 70여종의 개인 소장품 기증 ③11월 20일 이사회를 통해 발전기금으로 활용키로 결정

2 장학사업

▲1·2학기 장학금 : 12명에게 1천3백46만2천원 전달

공과대학동창회

1 주요행사

▲이사회 : 5월 11일 호암생활관 ①엔지니어하우스 건립사업 논의 ②차기 회장 추천

▲정기총회 : 5월 17일 공대 신공학관 ①모교 鄭日榮교수를 비롯 정년 퇴임교수 6명에게 기념품 전달 ②동창회 成宏模총무이사에게 공로패 전달 ③엔지니어하우스 건립기금에 출연한 동문

자연과학대학동창회 이사회

가정대학동창회 신입회원 환영회

및 기별동기회에 감사패 전달 ④신임 회장에 林光洙(52년卒·임광토건 회장)동문 선출

농과대학동창회

1 주요행사

▲정기총회 : 5월 9일 농생대 사색의 동산 ①전임 李茂夏총무에게 공로패 전달 ②새로 입각한 金成勳농림부 장관을 비롯 총 9명의 동문에게 축하패 전달 ③신임 회장에 尹勤煥(54년卒·前농업진흥공사 이사장)동문 선출 ④모교 은사에게 사은품 전달

2 기타

▲6월 1일자로 신임 총무에 金完培(75년卒·모교 교수)동문 선임

미술대학동창회

1 주요행사

▲뉴욕지부 曺基鉉(78년卒)미대동창회장 모교 방문 : 6월 18일 ①모교 夫守彦학장 방문

▲金春洙사무국장 뉴욕지부 방문 : 8월 7일 ①뉴욕지부 미대동창회보와 주소록을 전달받고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동창회 활동에 대해 논의

▲정기총회 : 10월 29일 야쿠르트빌딩 ①입학, 수료자중 화단에서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는 동문을 명예회원으로 추천 할 것을 논의 ②회원명부 제작 진행사항 보고

법과대학동창회

1 주요행사

▲정기총회 : 5월 14일 힐튼호텔 ①제6회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에 徐燉珏(46년卒·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李兌榮(49년卒·前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李世中(57년卒·KBS이사장)동문 수상 ②朴相千법무부 장관을 비롯 유공동문 32명에게 축하패 증정 ③古稀와 回甲을 맞은 7회·15회 동문에게 헌수연 ④李奭熙회장을 비롯한 26대 임원진 선출

2 장학사업

▲1·2학기 장학금 : 82명에게 7천3백53만1천원 전달

사범대학동창회

1 주요행사

▲정기총회 : 5월 29일 서울사대부속여자중학교 강당 ①신임 회장에 崔泰祥(57년卒·경복고등학교장)동문 선출 ②새로 영전한 河舜鳳·朱子文 동문 등에게 축하화환 증정

▲동창회 조직 활성화를 위한 수련회 : 11월 21일~22일 산정호수 유스타운 ①동창회 현황보고 및 발전도모 논의

2 간행사업

▲동창회보 연 2회 발행

상과대학동창회

1 주요행사

▲정기총회 겸 송년회 : 12월 29일 상의클럽 ①원로동문에게 기념품 전달 및 회원 친목위한 상패 전달

2 장학사업

▲1·2학기 장학금 : 60명에게 3천만원 전달

3 모교지원

▲교수연구비 3백만원 지원

수의과대학동창회

1 주요행사

▲정기총회 및 모교 방문의 날 : 9월 26일 수의대 강당 및 앞뜰 ①정년퇴임한 申光淳·金順在 교수에게 기념품 전달

▲회장단 회의 : 10월 19일 서울 배나무골 오리집 ①신임 회장에 李佑宰(62년卒·국회의원)동문 선출 ②장학금 모금 현황 보고 ③「모교 방문의 날」 결산보고

2 모교지원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장학재단 설립에 3천만원 지원

약학대학동창회

1 주요행사

▲정기총회 : 2월 25일 동창회관 관악홀 ①李禮植회장 연임을 비롯한 임원진 선출 ②신임 감사에 金永銓·徐庚昱·鄭鍊沁동문 선출 ③「총동창회장상」에 愼化範(58년卒)·姜炳善(60년卒)동문 수상 ④「약대동창회장상」에 李萬載(60년卒)동문을 비롯 5명 수상 ⑤신입회원중 李膧周·朴香來동문을 우수 졸업생으로 선정, 상장과 부상 수여

▲동창의 날 : 10월 10일 모교 교수회관 잔디마당 ①모리야마

공과대학동창회 「엔지니어 하우스」기공식

미술대학동창회 정기총회

회장을 비롯 在日「藥窓會」동문 참석

② 장학사업

▲1·2학기 장학금 : 10명에게 5백만원 지급

음악대학동창회

① 주요행사

▲임원회의 : 2월 28일 타워호텔 ①동창회 활성화를 위한 홍보이사 선임 건의 ②기대표 증원 검토

▲재미동창회 '98 서울대음악회 李南洙회장 참석 : 6월 7일 뉴욕 맨하탄 머킨 콘서트홀

치과대학동창회 정기총회

② 장학사업

▲1·2학기 장학금 : 2명에게 2백84만1천원 전달

의과대학동창회

① 주요행사

▲미주의대동창회 모국방문단 : 4월 20일~25일 ①미주의대동창회 宋寬鎬회장을 비롯 총 17명의 동문이 부부동반으로 참가, 모교 병원 및 동창회 방문 ②李吉女동창회장 주최 환영만찬 참석

▲동창의 날「모교 방문」: 10월 12일 모교 본관 강당 ①졸업 40주년을 맞은 12회 동기회원을 주빈으로 초청 ②「자랑스러운 서울의대인」에 金鎭福(58년卒·백병원 위암센터 원장)·李萬澤(58년卒·펜실베이니아 의대 마취과장)동문 수상

② 모교지원

▲학생활동 지원보조금 4백80만원 및 발전기금 1천2백만원 전달

치과대학동창회

① 주요행사

▲정기총회 : 5월 26일 모교 치대 제3강의실 ①金韓植동문을 비롯 원로동문 4명에게 기념메달 전달 ②전임 徐鎭寬·鄭寬喜·李炳奎부회장, 金重守총무, 李準圭협동총무, 文赫秀재무총무, 金鍾喆공보총무에게 공로패 전달

② 모교지원

▲6·9제 및 덴탈오케스트라, 상아제 1백90만원 지원

▲모교 교수 송년회 및 장기 해외연수 보조금 지원

대학원동창회

① 주요행사

▲정기총회 : 4월 17일 모교 교수회관 ①신임 회장에 裵載湜(53년 法大卒·한일포럼 회장) 동문, 감사에 朴暾緖(62년 工大卒·아주대 교수)·白忠鉉(61년 法大卒·모교 교수)동문 선출 ②전임 金完鎭·洪承五대학원장에게 공로패 전달

▲전체이사회 : 11월 21일 모교 교수회관 ①동창회사무국 재정비 및 인원 구성 ②동창회 활성화 방안 모색

② 장학사업

▲1·2학기 장학금 : 8명에게 1천3백1만5천원 전달

경영대학원동창회

① 주요행사

▲정기총회 : 5월 22일 동창회관 서라벌 ①尹禎燁·金英淑·朴炳潤·安炳泰동문에게 감사패 전달 ②朴炳潤 한국일보 사장「IMF국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강연

경영대학원동창회 정기총회

환경대학원동창회 정기총회

▲동창회 임원과 모교 교수와의 간담회 : 9월 30일 모교 동원생활관 ①동창회와 모교와의 유기적 연결 방안 논의

② 기타(클럽활동 현황)

▲등산클럽(회장 金秉權), 세미나클럽(회장 李徽永), 바둑클럽(회장 朴正男), 테니스클럽(회장 韓基龍), 담소클럽(회장 張泰煥), 골프클럽(회장 姜熙慶) 운영

교육대학원동창회

① 주요행사

▲임원회의 : 3월 3일, 9월 2일 동창회 사무실 ①동창회 활성화 방안 논의 및「동문 사랑방」개설 사항 검토 ②영전 및 정년퇴임 동문 축하 ③회원 주소록 재정비 방안 논의

▲동문 사랑방 개설 : 5월 16일 동창회 사무실 ①바둑 및 여가선용을 위한 장비 구입

② 간행사업

▲동창회보 연 2회 발행

보건대학원동창회

① 주요행사

▲모교 교수 초청 만찬 : 5월 1일 ①모교와의 유대강화 및 동창회 발전 방안 논의 ②각기별 대표 38명 위촉

▲회장단 및 기별대표 연석회의 : 8월 28일, 10월 16일 대학로 대림성 ①동창회 뉴스레터 발간 준비 사항 점검 ②정기총회 준비 사항 논의

▲정기총회 : 12월 9일 모교 강당 ①자랑스러운 동문 표창

② 간행사업

▲뉴스레터 창간호 발행

신문대학원동창회

① 주요행사

▲정기총회 : 2월 24일 프레스센터 ①李濟薰회장 연임 및 부회장단 선출 ②姜大仁 계명대 교수「IMF사태와 언론」주제발표로 학술세미나 개최

▲초대 신문대학원장 金圭煥박사 추모집 발간위원회 모임 : 4월 9일 미조리, 9월 8일 외백

② 장학사업

▲1·2학기 장학금 : 언론정보학과 석사과정 재학생 2명에게 2백40만원 전달

도시·환경고위정책과정동창회 창립총회

행정대학원동창회

① 주요행사

▲정기총회 : 5월 21일 롯데호텔 ①신임 李鍾贊국가안전기획부장(72년卒·부회장)을 비롯 상임이사 7명, 이사 13명 선임

▲임시총회 : 11월 13일 롯데호텔 ①1998년도 동창회 기금 조성 중간보고 ②199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③회비 지로용지의 회원통신란 활용 권장 방안 논의

② 장학사업

▲1·2학기 장학금 : 4명에게 4백72만6천원 전달

환경대학원동창회

① 주요행사

▲정기총회 : 3월 25일 상록회관 ①신임 회장에 全錫洪(74년卒·국회의원)동문, 부회장에 金相伯·鄭淸助·禹炅仙동문 선출

▲환경대학원 개원 25주년 기념행사 및 모교 방문의 날 : 9월 16일 모교 문화관外 ①기념식 및 환경관련단체 연합「21세기 도시·환경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세미나 개최 ②환경관 신축현장 답사 및 기념리셉션

② 모교지원

▲환경대학원 개원 25주년 기념행사에 1천만원 지원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

① 주요행사

▲이사회 : 4월 7일 신라호텔 ①정기총회 준비 사항 보고 및 사업계획 논의 ②金勝猷 하나은행장「한국금융기관의 현황과 기업의 대응방안」조찬강연

▲정기총회 : 4월 28일 하얏트호텔 ①결산보고 및 사업계획, 예산안 승인

최고산업전략과정동창회

① 주요행사

▲정기총회 : 4월 29일 르네상스호텔 ①신임 회장에 鄭八道(1기·(주)홍인 회장)동문 선출

▲동창회 임원 및 기별회장단 회의 : 5월 12일, 9월 22일, 11월 11일 르네상스 호텔 ①회칙개정 토의 ②임원수첩 발행 및 동창회 창립 10주년 기념 책자 발간 준비 논의 ③창립 기념 행사 및 책자 발간 위원회 발족, 행사내용 토의

▲임시총회 : 6월 26일 르네상스호텔 ①玄正元(19기·현원종합건설 대표)동문을 비롯한 19기 동창회원 중심「벤처기업 모임」창립 ②회칙개정 및 감사보고

국가정책과정동창회

① 주요행사

▲정기총회 : 5월 7일 하얏트호텔 ①신임 회장에 金相賢(27기·국회의원)동문 선출

▲조찬 운영위원회 : 7월 7일 프레스센터 ①감사에 安昌洙·高世一동문, 사무처장에 李文鎔동문, 재무간사에 金勇煥동문, 홍보간사에 李甫雨동문 선임 ②취미모임 활성화 방안 논의

▲매월 4째주 목요일 골프모임(행목회)통해 친목 도모

도시·환경 고위정책과정동창회

① 주요행사

▲창립총회 : 8월 18일 모교 호암교수회관 ①신임 회장에 禹炅仙(1기·신안건설 회장)동문, 수석부회장에 吳元錫(동성화학 대표)동문, 부회장에 金元吉·全烘奎동문, 이사에 金秀吉·南宇奎·庾鳳吉·趙誠泰·安政煥·林嶙鎬동문, 감사에 李 宣·李元在동문, 총간사장에 洪誠杓동문, 홍보교육간사에 白石斗동문, 조직섭외간사에 朴萬吉동문 선출

② 모교지원

▲환경대학원 발전기금 1천5백만원 및 발전기금 1천만원 전달

가정간호수습과정동창회

① 주요행사

▲정기총회 : 5월 23일 모교 간호대 강의실 ①결산보고 및 사업계획, 예산안 승인 ②金志玹·朴世眞동문「가정간호 사례」발표 및 토론

가정간호수습과정동창회 정기총회

뜨락

넓은 공간에서 공부하는 후배들이 부럽긴 하지만…

李叔妍(69년 藥大卒)삼육대 약대학장

자랑스런(?) 나의 대학생활은 삭막하고 운치없는 연건캠퍼스(현재의 치과대학 자리가 약학대학이었음)에서 문틀만 남아 있는 함춘문(含春門)과 궁터 위에 자리잡은 교수회관 겸 휴식공간인 함춘당이라는 곳을 드나들며 시작되었다. 그래도 길(지금의 대학로) 건너에는 문리대와 법대가 있어서 친구들과 어울려 기회가 있을 때는 그쪽 캠퍼스에 원정을 가기도 했었고 도로변에 지금도 남아 있는 학림다방을 즐겨 찾았었다.

그때만 해도 남학생들과는 엄격한 관계여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냈고 언제나 이름 뒤에는 서로 「씨」자를 반드시 붙임은 물론 항상 높임말이 오고 갔다.

「관악」 건물배치 너무 복잡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입학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 얼굴을 잘 몰랐을 때에 예리한 관찰력을 가진 누군가가 가짜학생을 적발했다는 것이다. 알고 보니 시골에서 상경하여 몇 차례 재수를 했는데도 불합격이 되어 시골 부모에게는 합격한 것으로 통보하고 들킬 때까지 다니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우리 모두가 한동안 할말을 잃고 마음이 아파 어쩔 줄 몰라하며 좀 더 다니게 두었더라면 오히려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 당시에는 그 얼굴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았고 필자도 몰라서 퍽 다행(?)이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지도 모르기에…

지금의 관악캠퍼스에 가보면 차를 타지 않고는 원하는 건물까지 가기가 힘들 정도로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지만, 어느 모임이 있은 후 교수회관에서 점심을 먹고 테라스에 나와 대학 전체에 흩어져 있는 건물들을 내려다보니, 이 문외한의 눈에도 공간배치가 전혀 정돈됨이 없이 아주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보였다. 관악산 기슭, 이 넓은 공간에 많은 건물들을 좀 더 잘 배치했더라면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누구나 감탄사가 나오고 느낌이 달랐을 텐데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도 한편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수학하는 후배들이 부럽기도 했다. 이처럼 서울대학교의 모습도 나라의 상황에 따라 변해가고 국내에서 우리 나라 대학끼리만 비교하면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외국의 유수한 대학의 수준과 순위를 매겨보면 아직도 몇십위로 처지고 있으니 그들과 제대로 겨루기는 요원한 일이라고 생각될 때 규모가 작은 대학에 있는 나로서는 누구보다도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다.

교직원 소명의식 가지시길

지난 일년동안의 안타까움과 원망, 좌절과 후회는 온 국민이 함께 겪는 고통분담이었고 그 와중에도 극소수는 반대급부로 돈이 쌓여 즐거운 비명을 질러대며 해외로 오락 및 골프여행을 마다하지 않았다니 자본주의의 커다란 모순을 어쩔 수 없이 감내할 수밖에…

지난 겨울방학에 개인사정으로 미루어 오던 좋은 기회를 얻어 일본의 한 대학에서 한달간 머물며 그들의 연구환경을 경험해 보니 근본적으로 몇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들의 연구실의 집기 중에는 60,70년대 우리 나라에서 쓰여지던 것이고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구경할 수조차 없는 물건(그동안 우리는 너무 흥청거리며 새것으로 바꾸었음)들이 현대의 최신형 물건들과 나란히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고, 또 한가지는 실험을 제대로 하기 위해 연구용 기기나 소모품들은 얼마든지 풍족하게 쓸 수 있지만 아낄 수 있는 학용품(종이, 볼펜, 지우개, 풀 등)이나 생활용품들은 직접 사서 얼마나 알뜰하게 사용하는지 우리네 실험실 생활습관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연구용 기기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연구용 소모품들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 실험은 저절로 되는 것 같고 그 결과가 얼마나 신속하게 나오는지 실험하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신나는 일이다.

끝으로 나의 모교 구성원들의 학사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나라 발전에 가장 큰 힘을 실어 주시고 계시는 교수님들과 직원 여러분들이시여!

공무원의 신분으로 하루하루 처리하는 그 업무의 질과 양이 우리나라의 장래를 좌지우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엄연한 사실 앞에서 특권의식과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겸허하게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없는 시간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해 봅니다.

나이 30의 분기점을 아주 멋지게 통과했다!

崔銀美(91년 人文大卒)한샘 마케팅부 홍보과 대리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내게 20대 후반의 후배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말이 있다. 곧 서른 둘인데 혼자 있는 것이 무섭지 않는지, 해놓은 것 없이 나이만 자꾸 먹는 것이 겁나지 않은지 등이 그것이다. 아마도 곧 자신의 일로 닥칠 미래를 미리 점쳐보기 위해서일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일생을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은 인생의 분기점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30대, 40대, 50대로 접어드는 문턱에 서서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평가해 보기도 하고 또 앞으로 펼쳐질 10년을 계획해 보기도 한다는 점에서, 10년을 주기로 사람들은 심리적인 분기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는 일군의 후배들에게, 나는 내 나이가 자랑스럽고 지금 너무나 편안하다고 감히 대답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서른의 분기점을 훌륭하게 통과했다고 생각한다.

자랑스럽고 너무나 편안

사실 나는 20대 중반을 넘어섰을 때부터 30대를 손꼽아 기다려 왔었다. 그때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에 혼자 서 있는 느낌이었다. 성인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때에는 화가 나다가도, 정작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길때면 준비부족을 이유로 달아나고 싶어했다. 그런한 모습이 싫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20대의 짐을 털어 버리고 싶었다.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20대의 나에게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과 물리적인 시간의 격차를 두고 싶었다.

그러면서 속으로 수없이 생각을 했었다. 30대에는 헤매는 것은 끝. 내 앞에는 모든 것이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고, 내 나이보다 많지도 적지도 않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당당하게 내 길 앞에 설 것이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을 했다.

작년 새해, 서른의 첫날이 밝았을 때, 물론 변한 건 아무 것도 없었다. 마술사도 아닌데 생각만 한다고 상황이 달라질게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나 20대의 무언가 복잡하고 꼬인 듯한, 몹시 감상적이면서 전혀 정리가 되지 않는 무질서 등등과의 단절을 간절히 바래왔던 때문인지 더 이상 잡스러운 생각들이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과 함께, 넓고 큰 길이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듯한 생각이 들었다.

나이 서른에 해놓은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는 남들의 걱정에도 지나온 일들보다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한다.

나이 먹는 것 그 자체를 두려워 할 게 아니라 나이에 맞게 자기 인생을 설계하지 못하고 책임지지 못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서른 두 살이 기다려진다

인생은 어떻게 계획하는가에 따라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가 생긴다고 한다. 30대의 나는 비교적 순조롭게 출발한 것 같다. 40대의 나는 40대에 걸맞은 경험과 경륜으로 인생을 알차게 채워 가고 있을 것이다. 50대에는 주름살에도 흰머리에도 당황해 하지 않고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60대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한 달 남은 서른 두 살이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동정

수상

▲鄭根謨(59년 文理大卒·아주대 교수)=지난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프랑스에서 열린 세계원자력회의에서 원자력에너지활용 및 기술개발의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원자력 한림원상」을 수상함.

▲韓萬靑(59년 醫大卒·모교 교수)=지난 11월 26일 신라호텔에서 대한의학회와 한국베링거인겔하임(주)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8회 「분쉬의학상」을 수상함.

▲金洙鎭(61년 文理大卒·모교 교수)=지난 11월 6일 대한지질학회 총회에서 제25회 「운암지질학상」을 수상함.

▲兪萬朝(61년 商大卒·장은창업투자 사장·한국벤처캐피털협회장)=지난 11월 5일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열린 98년 벤처기업 전국대회에서 「대통령 표창(벤처기업 지원기관 및 유공자 부문)」을 수상함.

▲李炳馹(63년 農大卒·모교 교수)=지난 10월 30일 한국원예학회에서 제3회 「학술공적상」을 수상함.

▲金芝希(63년 美大卒·효성가톨릭대 교수)=최근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유네스코가 제정한 「올해의 공예대상」을 수상함.

▲李善子(65년 看護大卒·모교 교수)=지난 11월 21일 대한보건협회(회장 李晟雨·59년 醫大卒) 정기총회에서 제12회 「보건대상(학술부문상)」을 수상함.

이동·선임

▲柳正烈(52년 文理大入·외국어대 교수)=최근 국제로타리 3650지구 총재지명위원회에서 2000년도 총재에 지명됨.

▲李龍兌(57년 文理大卒·삼보컴퓨터 명예회장)=지난 10월 23일 숙명여대 강당에서 제27대 학교법인 숙명학원 이사장에 취임함.

▲朴演島(60년 美大卒·前성균관대 교수)=최근 제17회 대한민국 미술대전(2부 구상계열) 심사위원장에 선임됨.

▲金湧精(64년 文理大卒·前한국일보 논설위원)=지난 11월 5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제38차 이사회에서 신임 전무이사 겸 사무총장에 선임됨.

▲尹興烈(65년 齒大卒·상아치과의원장)=최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제86차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에서 재무이사에 선임됨.

▲金榮石(66년 商大卒·前교보생명 사장)=지난 11월 16일 SK증권 대표이사 부회장에 선임됨.

▲金秀哲(67년 保大院卒·성형외과의원장)=최근 미스무궁화 선발대회 대회장에 선임됨.

▲金昌烈(70년 行大院卒·前한국 M&S컨설팅그룹 대표)=지난 11월 2일 그랜드백화점 대표에 선임됨.

▲朴常綠(71년 音大卒·충남대 교수)=지난 11월 21일 한국음악학회 제18회 정기총회에서 차기회장에 선출됨.

▲李萬儀(75년 環大院卒·행정자치부 인사국장)=최근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기획운영실장에 선임됨.

▲田溶鶴(77년 法大卒·前SBS해설위원)=최근 (주)SBS보도본부 국제부장에 선임됨.

▲權奇成(79년 行大院卒·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국장)=최근 한국레미콘연합회 부회장에 선임됨.

▲張勝和(85년 法大卒·모교 교수)=지난 11월 15일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인 WTO 패널위원으로 위촉됨.

행사·출간

▲韓端錫(54년 文理大卒·전북대 명예교수)=지난 11월 28일 일본칸트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한국에서의 서양철학사상의 수용과 칸트철학사상의 전개」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함.

▲金哲洙(56년 法大卒·모교 명예교수·本報論說委員)=지난 11월 6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선·후배 및 제자들과 함께 「정년퇴임 기념논문 봉정식」을 가짐.

▲高炳佑(56년 商大卒·동아건설산업 회장)=지난 10월 15일 인간개발연구원이 주최한 조찬세미나에서 「한국기업의 기업개선작업전략-동아건설 회생 사례중심」이란 주제로 강연함.

▲鄭東華(57년 師大卒·의식개혁교육연구협의회장)=지난 11월 11일 인천 남동구청 강당에서 「교육발전과 의식개혁」을 주제로 제2회 토론회를 개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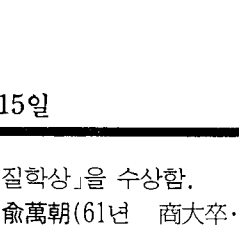
▲曺慶鍾(60년 獸醫大卒·한국소비자연맹 부산시 회장)=최근 동아대학교 강당에서 「경제살리기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함.

▲任貞彬(61년 家政大卒·한양대 교수·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장)=최근 두차례에 걸쳐 전국 복지관련 공무원 3백여명을 대상으로 「실직자 가정의 위기극복 전략 및 가정복지 지원체계」를 주제로 교육을 실시함.

(11면에 계속)

제1회 「대한민국 수의사 賞」 수상

중부가축병원 趙休翼원장



30여년이 넘게 동물병원을 운영해온 趙休翼(63년 獸醫大卒·수의대동창회 수석부회장)중부가축병원장(사진)이 지난 11월 20일 분당 수의과학관에서 대한수의사회가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제정한 제1회 「대한민국 수의사상」을 수상했다.

趙동문은 93년부터 수의사회를 통해 양로원·보육원에 애완동물 기증운동을 비롯해 구충약·광견병 예방주사, 무료접종 등 봉사활동을 펼쳐 왔다.

趙동문은 그동안 애완동물 보급을 위해 「내사랑 뚤네」라는 만화 애견백과를 펴내는 등 6권의 저서를 출간했다.

(燮)

腦신경 조절반도체 개발 성공

모교 金成俊교수팀

사람의 뇌신경을 제어할 수 있는 미세 반도체가 金成俊(78년 工大卒·모교 교수) 동문(사진)의 연구팀에 의해 국내 최초로 개발됐다.

金동문팀은 뇌신경을 자극하고 뇌에서 전달되는 신경신호를 기록할 수 있는 미세한 반도체 소자를 2년여의 연구 끝에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SNU PROBE」라 이름 붙여진 이 반도체 소자는 머리카락 10분의 1 굵기의 신경전극 위에 20마이크론에 불과한 미세한 전극을 집적한 것으로, 외부의 자극을 뇌가 인식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데다 뇌 이식에 가장 적합한 크기에 가까운 것이 특징이다.

金동문팀의 이번 뇌신경 조절 반도체 개발은 미국 미시간대와 스탠포드대에 이어 세계 세 번째이며, 국내 장애인 재활치료에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 〈信〉

〈10면에 이어〉

▲**李芳淑**(65년 音大卒·연세대 교수)= 지난 11월 24일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李芳恩(67년 音大卒), 李芳姬(71년 音大卒)동문과 함께 「故 李仁範 교수 25주기」 추모음악회를 개최함.

▲**李但悅**(67년 音大卒·성신여대 교수·테너)= 지난 11월 23일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독창회를 가짐.

▲**金春玉**(68년 美大卒·인하대 강사)= 지난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조선화랑과 대구 송아당화랑에서 「자연에서」의 연작 시리즈를 중심으로 개인전을 가짐.

▲**趙誠愛**(68년 美大卒·한국현대 판화가 회원)=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4일까지 서울중앙병원 갤러리에서 李貞林(77년 美大卒), 朴顯淑(79년 美大卒), 全慶鈺(80년 美大卒)동문과 함께 판화 작품을 중심으로 제10회 「그룹 잉킹 쇼」를 가짐.

▲**李元馥**(66년 工大入·덕성여대 교수·本報 論說委員)= 지난 11월 14일 동숭동 무애빌딩에서 「일본문화 개방시대의 우리 만화 사랑」이란 주제로 강연을 가짐.

▲**鄭勝榮**(71년 音大卒·대전시립교향악단장)= 지난 11월 3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李承烈(72년 音大卒·추계예술대 교수), 鄭光春(76년 音大卒·중앙대 강사)동문과 함께 金海淑(77년 音大卒·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동문의 가야금 협연으로 필하모니아 현악4중주단 제16회 정기연주회를 가짐.

▲**文在淑**(76년 音大卒·이화여대 교수)= 지난 11월 20일 호암아트홀에서 무형문화재 제23호 김죽파 가야금 산조와 민속풍류를 선보임.

▲**申亨植**(77년 醫大卒·강동성심병원 교수)= 최근 창작수필사가 주관한 제29회 등단 작품상에 「잊을 수 없는 환자」라는 글이 당선됨.

▲**鮮于蘭永**(78년 音大卒·안양대 교수·피아니스트)= 지난 12월 3일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장성은(90년 音大卒·첼리스트)동문, 바이올리니스트 우정은(연세대 강사)씨와 함께 「Trio A 연주회」를 가짐.

▲**全美映**(78년 音大卒·한국교원대 교수·피아니스트)= 지난 11월 18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발렌티니 소나타 마장조, 베토벤 소나타 5번, 뒤포르의 로맨스 등의 곡을 중심으로 제15회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이중주의 밤」 연주회를 가짐.

▲**李承珍**(80년 音大卒·영남대 교수)= 지난 10월 14일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베토벤, 프로코피에프 등의 작품을 중심으로 현악사 창립 30주년 기념 첼로독주회를 가짐.

▲**金日輪**(83년 音大卒·이화여대 강사)= 지난 11월 30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가야금독주회를 가짐.

▲**許 塡**(85년 美大卒·전남대 교수)= 지난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익명의 인간」 연작시리즈를 중심으로 네번째 개인전을 가짐.

▲**尹京愛**(85년 醫大卒)= 최근 윤경애소아과 의원을 개원함.(주소 : 서울 강서구 가양2동 대림경동아파트상가 207호, 전화 : 3663-3755)

▲**鄭楨鎬**(86년 音大卒·서울챔버오케스트라 단원)= 지난 12월 2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金大鉉(81년 音大卒·피아니스트)동문의 반주로 바이올린 독주회를 가짐.

▲**禹周亨**(88년 美大卒·모교 강사)= 지난 11월 21일부터 27일까지 갤러리LGF에서 종이 꼴라쥬 기법을 사용한 패션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을 중심으로 첫번째 개인전을 가짐.

▲**宋侖爰**(91년 音大卒·한세대 강사)= 최근 쇼팽홀에서 모짜르트의 소나타 등을 중심으로 피아노 독주회를 가짐.

▲**元永實**(92년 音大卒·부산대 강사)= 지난 11월 13일 부산문화회관 소극장에서 국내 작곡가의 창작곡을 위주로한 가야금독주회를 가짐.

▲**金相賢**(27기 ACAD·국회의원·국가정책과정동창회장)= 지난 11월 26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98 국회의원 김상현 후원의 밤」행사를 가짐.

〈정리= 李美連 기자〉

華 燭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화촉을 밝힐 동문을 소개한다.

*이태희 군(96년 工大卒)·김수진 양= 12월 19일 12시30분.

*권상균 군(92년 人文大卒)·박지향 양= 12월 19일 14시.

*홍기성 군(92년 獸醫大卒)·임재연 양= 12월 19일 15시30분.

*오창식 군(93년 人文大卒)·이영아 양= 12월 20일 12시30분.

*강국환 군(92년 工大卒)·김정미 양= 12월 26일 12시30분.

*임성룡 군(89 自然大卒)·남지혜 양= 12월 26일 14시.

*우병재 군(93년 社會大卒)·박혜성 양= 12월 26일 15시30분.

*지형석 군(93년 自然大卒)·강은영 양= 12월 27일 12시30분.

*안재용 군(95년 經營大卒)·김현님 양= 12월 27일 14시.

*설동진 군(96년 工大卒)·이유정 양= 1월 10일 12시30분.

*최 영 군(93년 工大卒)·조성아 양= 1월 15일 12시30분.

*송기상 군(93년 經營大卒)·박소현 양= 1월 16일 15시30분.

동문을 찾아서

李基俊 총장

"세계에서 인정받는 대학이 되는 것이 개혁 목표"

대 담 : 본보 安炳璨 논설위원

모교 제22대 총장에 취임한 李基俊(61년 工大卒)박사의 관악캠퍼스 총장실은 모교 대학신문의 첫 면담과 내방객으로 활기에 가득 차 있었다. 이 총장을 본보 安炳璨(75년 新大院卒·경원대 교수)논설위원과 李世震 편집주간이 25일 관악캠퍼스로 찾아가 대담했다.

-총장직선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선제가 좋은 점도 있고 안좋은 점도 있습니다. 직선제를 실시한 것이 이번이 네 번째인데 제가 도전한 것은 세 번입니다. 3년반만에 세 번이니까 이것은 대학을 위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반수 이상의 좋은 성적으로 선출은 되셨지만 찬반으로 찢긴 내부 상처를 어떻게 꿰매실 생각이십니까.

『바늘이 있어야 하겠지요(웃음). 서울대 개혁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서울대가 국립대학 중의 하나로서 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아시는 것이지만 단지 국내에서의 역할차원을 벗어나서 이제는 세계무대에서 경쟁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국가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인재를 배출하고 또 그 경쟁을 하기 위해서 한사람보다는 두명, 세명이 모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해 우리가 필요로하는 인재·경쟁력,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 등을 염두에 두고 리오리엔테이션(Reorientation)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수들이나 학생들이 함께 성장·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필요하면 어려움도 감내할 수 있는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무한경쟁시대의 실사구시를 지향하는 교육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경쟁력이라는 것은 꼭 이공계통만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자는 것은 어떤 분야이든지 세계에서 다섯번째나 열번째에 들어가는 분야가 생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공계통보다 인문계,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계의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전임 총장의 구조조정안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가져갈 것인지 묻겠습니다.

『학장회의에서 통과한 여러 가지 큰 줄거리는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 즉 분야별·대학별로 발전계획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발전계획만 가지고 동떨어진 이야기만 하면 안되니까요. 왜 이런 일들이 안됐는지 진단도 동시에 하면서 개혁을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개혁의 목표는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무대에서 인정받는 대학이 되도록, 그 분야 수준의 연구교육이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공과대학만 너무 비대하고, 공대가 세계 1백50위 수준인데 법대는 10위 수준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법대가 10위이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네요.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몰라도 법대가 10위 이내에 들어갔다고 광고를 더 해야겠는데요(웃음). 사실은 법대 교육과 관련해서 서울대가 제대로 되려면 세계수준의 대학이 되도록 교육과 연구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뒷받침하는 인재등용체제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 잘 안되면 교육개혁의 효과가 아주 형편없이 될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울대가 고시촌화(考試村化)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됩니다』

-취임사에서 아카데미즘과 프로페셔널리즘을 결합해서 시너지효과를 내자고 하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순수학문과 응용학문은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순수와 응용은 굉장히 보완적인 것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을 해서 상승효과,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만 세계무대에 진입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순수학문과 응용학문이 협력해서 주거니 받거니 해야만 학문도 발전하는 것이지 따로 따로 연구해야 한다면 무엇때문에 유니버시티(University)를 운영합니까』

-아드님 병역문제는 교육부 승인을 받았습니까.

『그런 셈이지요. 귀국해서 한국인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했으니까요』

-병역의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병역의무를 마치고 대학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터어키의 경우 10년전부터 영어로 강의하고 있는 5개 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이 해외교포 1천만명 중에서 오고 있답니다.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것은 좋은데 병역문제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았더니 교수로 오는 사람들은 대개 1~2주, 학생의 경우 1~2개월정도 훈련받으면 군필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해외교포들이 관광 등을 통해 자주 터어키를 찾아온다는 거죠. 이것이 학문적으로 대학교육 문제를 발전시키는데 큰 모티브가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타대학에서는 서울대의 오만과 편견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든 극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대가 국립대학이고 그만큼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서울대에서 얻은 것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근본적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에 대한 비판적 의식은 어떻게 보면 좀더 잘하라는 뜻이므로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반성해야 합니다. 가령 분야에 따라서는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시각에 대한 인식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수준의 훌륭한 인재양성 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면 국민은 물론 어느 누구라도 서울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하겠지요』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데 각 단과대학별로 이기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역량을 집결해서 함께 뛰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대학본부에서 보는 시각과 각 단과대학에서 보는 시각이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부에서 컨트롤(Control)하거나 능력있는 분들이 뛰어달라고 하는 등 극단적으로 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본부에 있는 분들은 각 단과대학별로 활동하는 것이 좀 불편했던 것이 사실인데 저는 어느 정도 수용하려고 합니다. 옛날과 같은 시각에서 벗어나 각 단과대학을 연결해주는 사람도 동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문들의 후원도 적극적으로 받는 등 세계무대에서 뛰기 위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힘의 결집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원을 받으려면 우리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은 버려야지요』

-서울대가 옛날에는 가난한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서 등용하고 사회에 나가 성공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특권층이 서울대에 들어와 특권을 확대재생산한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울대가 그동안 못 사는 학생들이 줄고 잘 사는 학생들이 늘어났는지 그것은 전혀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잘 살지 못하는 학생들도 대학에 와서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특권층이라든지 돈이 많은 학생들이 오면 돈을 좀더 내게 해서 돈이 없는 학생들을 지원하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웃음)』

-석학(碩學)과 행정가를 말씀하셨는데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총장이십니까?

『저는 석학에도 가깝지 못하고 행정가에도 가깝지 못한 것 같습니다만 양쪽을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동창회와의 관계 설정은.

『동창회와 대학은 좀더 가까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창회라는 조직을 지금보다 더 활성화시키면서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서울대동창회라고 해서 고려대나 연세대보다 못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총장실에서 해야할 일이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동창회에는 거창한 동문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잘 활용하고 모시기도 하면서 대학발전과 연계해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재임 중에 꼭 이루고 싶은 일 한가지만 꼽아 보십시오.

『세계무대에서 이름을 낼 수 있는 분야가 한 두개라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쟁력·창의력 갖춘 두뇌 양성할 터
순수·응용학문의 시너지 효과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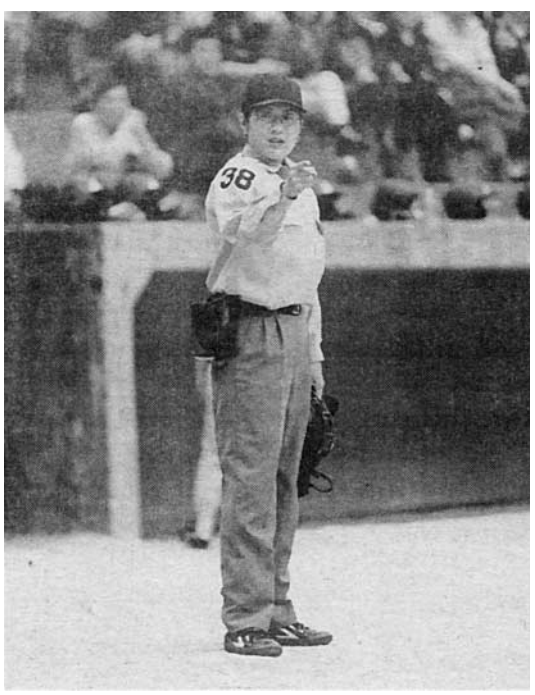
〈약 력〉

△61년 서울대 공대 졸업
△64년 대학원 졸업
△71년 美워싱턴대 공학박사
　서울대 공대 교수
△90년 서울대 공대 학장
△92년 전국공대학장협의회 회장
△93년 한국공학기술학회 회장
　한국공학원 회장
△97년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

화제의 동문 Talk

대한야구협회 韓明善동문

非선수 출신 홍일점 야구심판
마라톤·수상스키도 뛰어나



국내 야구심판계에 혜성같은 인물로 각광받고 있는 인물이 있다.

대한야구협회 홍일점 심판인 韓明善(88년 師大卒)동문이 그 주인공.

남성들만의 세계로 인식되었던 야구심판계에 새로운 획을 그, 韓동문은 대한야구협회 심판중 유일한 비선수 출신으로 올해 4월 심판으로 위촉돼 활약하고 있다.

韓동문은 대학 1학년 당시 교내 순환도로 코스의 마라톤대회에서 3등을 차지하는 등 운동에 있어서 탁월한 실력을 보여줬던 인물.

운동을 좋아해서 체육교육과를 선택했다는 韓동문은 재학시절 테니스, 농구, 스킨스쿠버 등의 많은 체육 써클활동에 참여했을 정도로 스포츠에는 팔방미인이다.

특히 3학년 때에는 수상스키 선수로도 활약한 바 있는 韓동문은 그후 수상스키 등의 국제심판을 맡으며, 심판이라는 일에 대한 매력을 느꼈다고 한다. 그후 이것이 인연이 되어 국내 여성야구 심판원으로 첫 발을 내딛는 중요한 동기가 됐다.

처음 韓동문이 야구심판이 되고 싶다고 했을 당시 주위에서는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동정반, 의심 반의 눈초리가 많았다. 하지만 韓동문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듯이 야구는 남성들만의 전유물이라는 선입관을 변화시키고 싶었다. 그럴수록 더욱 자신의 일에 대해 연구와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남들과 같아서는 그런 선입관을 바꾸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韓동문은 야구심판이 되기 위해 94년 한국야구위원회(KBO) 주최 심판교실 연수를 거친 뒤 95, 97년 두차례나 미국 심판학교로 유학을 가는 등 국제적인 야구 흐름을 익혔다.

이렇듯 탄탄한 내실을 다진 韓동문은 점차 야구심판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으며, 여성이 아닌 심판으로서 인정받기 시작했다.

국내 여성야구심판이 韓동문이 처음은 아니다. 70~80년대 활동했던 최경임, 조계순, 오동숙씨 등이 여성야구심판으로 활동했으나 이는 대한야구협회 정책의 일환이라는 면이 더 강했다. 이에 韓동문은 자신 스스로의 노력과 1백50경기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심판계에 몸소 뛰어든 것이다.

韓동문은 『경기의 수준도 심판에 위해 좌우될 수 있으며, 심판은 곧 연출자이고 선수는 배우』라며 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내 유일의 여성야구심판인 韓동문은 『이전의 국내 여성야구심판처럼 단명하지는 않겠다』고 말하며 『꾸준히 노력해 국제심판으로까지 인정받을 예정』이라고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이제 동문들은 야구경기 관람시 경기뿐 아닌 韓동문의 날렵하고 우렁찬 판정소리도 함께 들을 수 있을 것이다.

韓동문은 현재 방화중학교에 재직하고 있다.

〈信〉

동문기업 탐방 ㉙ 한국 쓰리콤

21세기 데이터 네크워크 선두주자
OEM방식으로 다양한 요구 충족

한국 데이터 네트워크 산업 발전의 역사와 함께한 한국 쓰리콤(3Com).

한국 쓰리콤은 근거리 통신망(LAN)을 이루는 각종 장비와 일반인들이 모뎀을 사용, 이용할 수 있는 원거리 통신망(WAN)를 갖추고 이를 판매하는 세계적 네트워크 회사다.

특히 네트워크 카드, 허브, 스위치 등의 근거리 통신 제품과 모뎀, 원격접속장비(RAS) 등의 원거리 통신 장비가 그 대표격으로 전세계 네트워크 시장을 장악, 주도해 오고 있다.

쓰리콤(3Com)이 의미하는 것은 Computer, Communication, Compatibility이다.

현재 약 60억불의 매출액과 2억개 이상의 고객 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쓰리콤의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 위치해 있다. 특히 쓰리콤은 전세계 45개국에 1백60여개의 지사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데이터 네트워킹의 선두주자다.

또한 ISO 9002 인증을 획득한 제품 생산공장을 미국과 아일랜드,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으며 싱가폴에도 공장을 마련, 점차 아시아 지역에도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 98년 1월 한국 쓰리콤에 영입된 金忠世(68년 工大卒)사장은 오랜 정보통

金忠世 사장

신업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기업인 쓰리콤의 네트워크 솔루션을 한국 시장 및 고객의 요구에 맞도록 적절히 조정해 내고 있다는 찬사를 받고 있다. 특히 金사장은 (주)대우그룹과 AT&T에서의 근무 경험으로 한국과 다국적 기업의 균형있는 관리기법을 한국 쓰리콤 경영에 도입, 외국 회사의 한국 법인 경영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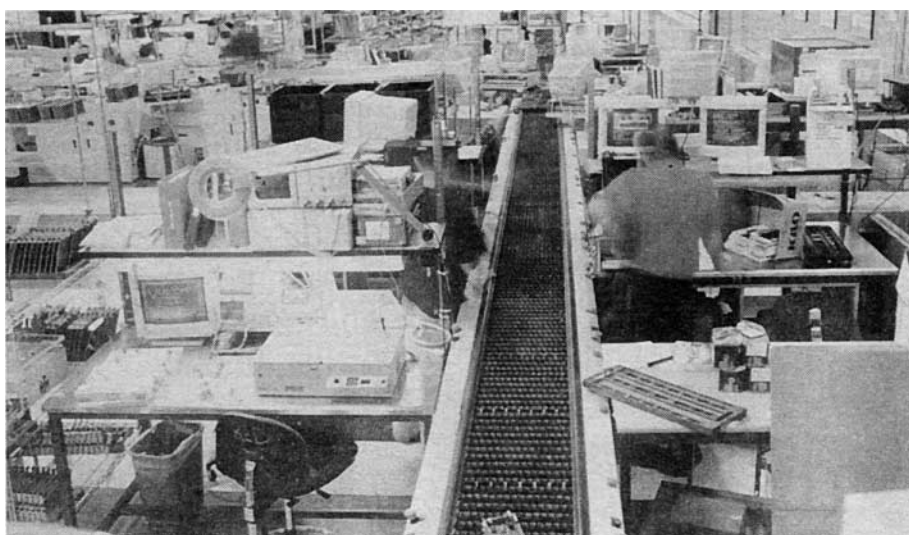
또한 한국 쓰리콤은 네트워킹 시장을 5가지로 구분, 각 시장마다 상이한 고객의 요구에 부흥하고 있다.

첫째, 저렴한 가격, 편리한 사용을 원하는 중소기업군 시장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둘째, 보안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며 한순간이라도 네트워크가 고장나지 않기를 바라는 대기업군 시장 고객의 요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셋째,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바라며, 잠시의 고장도 사업에 치명적인 해를 미칠 수 있는 통신 서비스 기업군 시장에 맞추어 세계 첨단의 장비를 공급하고 있으며 넷째, 모뎀을 이용해 인터넷의 사용 및 고속의 통신 사용을 바라는 일반 통신자들을 위해 최고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문자생산방식(OEM) 시장을 위해 이미 전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은 안정적인 제품을 가장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준비, 개별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귀기울이고 있다.

金사장은 『향후 한국의 네트워크 산업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데이터와 음성이 통합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제부터라도 쓰리콤을 파트너로 선택함으로써 생산성을 극대화, 총소유비용을 극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있게 말했다.

〈信〉



3Com 본사 공장 내부

관악무역인회

제2대 회장에 金閏鍾동문

좌로부터 金閏鍾회장, 徐廷煥명예회장

관악무역인회(관무회·회장 徐廷煥)는 지난 9월 8일 회장단 회의를 열고 신임 회장에 金閏鍾(71년 藥大卒·馬聖商事 대표)동문을 선출하고 고문에 表相基(65년 工大卒·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동문, 명예회장에 徐廷煥(64년 師大卒·理工交易 대표)동문을 추대했다.

수석부회장에 金相男(70년 商大卒)동문, 부회장에 柳東林(72년 工大卒)·曺章鉉(73년 工大卒)·李 杰(74년 文理大卒)·徐應源(78년 農大卒)동문, 감사에 沈文圭(75년 文理大卒)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한편 신임 金閏鍾회장과 徐廷煥명예회장은 지난 11월 16일 본회를 방문, 李世震사무총장과 관무회 명부 발간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徐명예회장은 『관무회가 97년 1월 창립돼 연1회에 걸친 모임을 가져왔으나 보다 활성화 시키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신임 金회장은 『앞으로 회원간의 '친선도모 및 정보교환을 통해 내실을 기하고 무역대리점협회 회원과 융화해 원만하게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년 1월말 내지 2월초에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모교 李基俊총장을 초청, 모교 발전에 기여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약창회

내년 4월 京都서 총회 열기로

小武徹郎동문

모교 약학대학의 전신인 경성약학전문학교를 졸업한 일본인들의 친목모임인 藥窓會 고타케 태쯔로(小武徹郎·45년 京城藥專卒·원일항공 회장)동문이 지난 11월 20일 본회를 방문, 李世震사무총장과 동창회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고타케동문은 『일본인 중에 서울대 약대, 의대 출신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동창회 모임에 자주 초청해 주기 바라며 일본 방문시 약창회 회원을 찾는 등 유대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李世震사무총장은 『앞으로 약창회 회원들이 東京, 大阪, 九州 지역 동창회에 참여해 활동하고 약창회 모임에 국내 동문들을 초청하는 등 상호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李禮植약대 동창회장은 『내년 4월 11일 京都에서 열리는 약창회 총회에 국내 동문 40여명이 참석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고타케동문이 차기 약창회 회장에 선임될 예정이라고 귀띔해 주었다.

수의과대학

李佑宰회장 추대

獸醫科大學同窓會(회장 尹志炳)는 최근 회장단 및 재단법인 수의대장학재단 이사진 연석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임 동창회장 선출문제 및 「98 모교방문의 날」 결산보고, 장학금 모금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해 여러 의견을 나눴다.

특히 신임 동창회장으로 李佑宰(62년卒·국회의원)동문(사진)을 추대, 이사진을 비롯한 회원들에게 서면결의 투표를 실시한 결과 90%이상이 찬성의 뜻을 표했다.

同會 고문으로 활약해온 신임 李회장은 『앞으로 동창회가 할 일은 모교를 사랑하며, 동문여러분의 의견을 모으고, 이를 현실에 맞게 실현해 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 동창회지에 「동창회에 바란다」라는 코너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치과대학

상아제 기념 「골프·바둑대회」

齒科大學同窓會(회장 金讚淑)는 모교 상아제 기간을 기념해 지난 11월 16일 뉴서울컨트리클럽과 치대 제3강의실에서 「친목 골프 및 바둑대회」를 가졌다.

金회장(左)이 金光善동문에게 상품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골프대회에서는 최고의 실력을 가진 동문을 가리기 위해 메달리스트를 3위까지 선정해 눈길을 끌었다. 총 32명의 동문이 남녀로 조를 나눠 실시한 결과, 1위에 金光善동문, 2위에 李光倫동문, 3위에 禹鎭午동문, 여성 메달리스트에 李康喜동문이 각각 차지했다.

또한 許研旭동문과 金회장이 최고령 참가 동문으로 선정돼 특별상을 받았다.

한편 바둑대회에서는 吳應瑞동문이 우승, 柳邦燮·金達澤동문이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吳季錫동문은 감투상을 받았다.

(美)

마퍼 LO

李 元 馥

희망의 나라로! —李·宋號 出帆

약대 74회

모교 발전기금 5백만원 쾌척

둘째줄 우측에서 여섯번째 閔회장.

약대74동기회(회장 閔丙琳)는 지난 10월 25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졸업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엔 약대동창회 李禮植회장, 尹斗石부회장과 모교 李民和학장, 金洛斗·金炳珏·金博光교수 등을 비롯해 해외·지방거주 동문들이 대거 참석했다.

부부동반으로 모인 이날 행사에서 同會는 모교 발전기금으로 5백만원을 출연했으며, 동창회 발전기금으로 1백만원을 쾌척했다.

치대 11회

정기총회 열어 단합·친목 다짐

치대11동기회(회장 金鍾萬)는 지난 11월 11일 용산소재 「용사의 집」에서 제30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邊碩斗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金회장은 『그동안 同會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모임에 꾸준히 참석, 동문 상호간의 단합과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동창회란 서로 공을 들이고 단합해야 하는 것이며 이 자리에 참석한 모두가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許 埴(허식 치과의원장)동문이 동기회 특별기금으로 1백만원을 출연했다.

항공우주공학과

成琦秀회장 선출

항공우주공학과동창회(회장 韓萬燮)는 지난 10월 25일 모교 호암생활관에서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魏祥奎·李海京(모교 명예교수)동문을 비롯해 50명의 회원이 부부동반으로 참석했다.

同會는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成琦秀(엘렉스컴퓨터 고문)동문(사진)을 선출했으며, 총회 후에는 캠퍼스내 잔디밭에서 체육대회를 개최,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장을 펼쳤다.

전자공학과

李梓旭회장 유임

전자공학과동창회(회장 李梓旭)는 지난 11월 23일 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98년도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가졌다.

李鍾珏(모교 명예교수)동문을 비롯해 동문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무한기술 투자금융의 정기성박사를 초청, Angel Club(사업 초기자금 조성)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 임원개선을 통해 李회장의 유임을 결정했으며 최근 발간한 회원명부를 참석한 동문에게 배포했다.

同會는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는 뜻에서 전임 회장인 李忠雄(모교 교수)동문에게 특별공로패, 전임 간사장인 李在弘(모교 교수)동문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행대원 70회

추계수련회 개최

행정대학원 70학회(회장 金源泳)는 지난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1박 2일간 전남 고흥에서 추계수련회를 개최했다.

柳相哲(전남 고흥군수)동문 초청으로 가진 이날 행사에서는 송광사, 서남사, 낙안읍성 등을 견학하며 동문 서로간의 우애와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 10일엔 풍광이 아름다운 소록도와 국립해상공원을 관광했다.

〈信〉

모임예정

사범대학

師範大學同窓會(회장 崔泰祥)는 12월 15일 서울대 사범대학 부속여자중학교 강당에서 「송년의 밤」을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720-8116)

경영대학원

經營大學院同窓會(회장 孔大植)는 12월 18일 동창회관 4층 서라벌에서 「송년의 밤」을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702-3366)

식품공학과

식품공학과동창회(회장 金錫信)는 12월 18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송년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567-9108)

송탄지부

송탄지부동창회(회장 李正勳)는 12월 19일 송탄시 서정동 소재 「삼다도횟집」에서 「정기총회 겸 송년회」를 가질 예정이다. (문의 : 0333-662-4805)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동창회(회장 金永久)는 12월 22일 홍익대 부근 서교호텔에서 「송년모임」을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880-6456)

상과대학

商科大學同窓會(회장 張禮準)는 12월 29일 대한상공회의소 상의클럽에서 「정기총회 겸 상대인의 밤」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753-2277)

국어교육과

국어교육과동창회(회장 尹單姬)는 99년 1월 3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신년하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880-7657)

간호대학

看護大學同窓會(회장 楊銀淑)는 99년 1월 6일 모교 간호대 기숙사 라운지에서 「신년하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740-8843)

모교소식

제22대 李基俊총장 취임

"實事求是 지향하는 교육 중요"

모교는 지난 11월 24일 관악캠퍼스 문화관 소강당에서 李海瓚교육부 장관, 咸鍾漢국회 교육위 위원장, 尹厚淨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본회 金在淳회장, 白樂院·李達雨·閔丙畯부회장, 李奭熙법대동창회장, 金讚淑치대동창회장, 모교 尹天柱·高柄翊·權彝赫·李賢宰·趙完圭·李壽成·鮮于仲皓전임총장과 연세대·고려대·이화여대 총장 등 교내외 인사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李基俊 제22대 총장 취임식을 가졌다.

李총장은 취임사에서 『지식경쟁, 무한경쟁시대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實事求是를 지향하는 교육이 중요』하다며 『순수학문분야의 아카데미즘과 응용학문분야의 프로페셔널리즘이 연구에 있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총장 인터뷰 14면 참조〉

이날 취임식에는 李海瓚교육부 장관, 李賢宰전임총장의 축사, 崔松和부총장의 대학상징열쇠 전달이 있었다.

부총장에 宋丙洛교수 임명

兪炳林 환대원장·金信福 행대원장

지난 11월 27일자로 부총장에 宋丙洛(63년 商大卒)사회대 경제학부 교수가 임명됐다.

신임 宋부총장은 63년 상대를 졸업하고 66년 경영대학원을 수료한 후 70년 美南캘리포니아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宋丙洛 부총장

한편 지난 11월 5일자로 환경대학원장에 환경조경학과 兪炳林교수, 12월 7일자로 행정대학원장에 행정학과 金信福교수가 선임됐다.

67년 공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신임 兪원장은 72년 행정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를 받고 美하버드대에서 조경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兪원장은 76년 모교에 부임해 환경대학원 부설 환경계획연구소장을 역임한 바 있다.

兪炳林 환대원장

金信福 행대원장

신임 행정대학원 金원장은 68년 사대를 졸업한 후 70년 행정대학원을 거쳐 73년 피츠버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金원장은 97년 3월부터 본부 교무처장을 지낸 바 있다.

李炳漢교수 등 20명

명예교수로 추대

모교는 지난 11월 13일 李炳漢교수 등 20명의 명예교수를 새로 추대했다.

이번에 추대된 명예교수 명단은 다음과 같다.

李炳漢(중문학)교수, 李秉建(영문학)교수, 金哲子(독문학)교수, 朴煥德(독문학)교수, 車仁錫(철학)교수, 姜命圭(경제학)교수, 徐鳳延(심리학)교수, 崔柄斗(물리학)교수, 洪麗信(간호학)교수, 朴仲鉉(지구환경시스템공학)교수, 閔哲泓(디자인학)교수, 金哲洙(법학)교수, 申光淳(수의학)교수, 金鎭福(의학)교수, 徐景弼(의학)교수, 成虎慶(의학)교수, 尹德老(의학)교수, 尹鍾求(의학)교수, 咸毅根(의학)교수, 姜信澤(행정학)교수.

공과대학 「훌륭한 교수」시상

공과대학(학장 李長茂)은 지난 11월 27일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제7회 「훌륭한 공대교수상」 시상식을 가졌다.

교육상 부문에 姜錫昊(70년 文理大卒)산업공학과 교수, 학술상 부문에 曺元鎬(73년 工大卒)섬유고분자공학과 교수, 기술상 부문에 金榮澤컴퓨터공학과 교수가 각각 수상했다.

〈燮〉

총장 취임사 〈요지〉

교육의 축은 학생 위주의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다가오는 21세기의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민족이 세계 무대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창의력과 경쟁력을 지닌 인재를 기르는 일입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 막중한 것은 이러한 인재양성의 역할을 바로 대학이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경쟁, 무한경쟁이라 불리우는 이 시대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지향하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서울대학교는 인재를 양성하고 학문의 전수를 담당하는 교육기관이자, 또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연구기관입니다. 우선 교육기관으로서, 서울대학교는 우리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다양한 배경의 인재를 교육하고 배출하는 일을, 무엇보다 중요한 임무로 생각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가 연구중심대학이 된다고 해서, 교육의 중요성이 소홀히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육의 축이 교수 위주의 공급자 중심에서 좀 더 과감히 학생 위주의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의 현실적 가치관에 따라 교육의 방향을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의미있고 생동감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고시제도와 같은 소모적인 인재 등용방법의 조속한 개혁도 이뤄져야 합니다. 고시촌화(考試村化)하고 있는 대학을 진정한 학문의 전당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시 한번 사회 모든 구성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기준에 휩쓸려 순수학문이 도외시 되는 현재의 대학 분위기는 바뀌어야 합니다. 대학과 사회의 비효율을 유발시키는 이러한 근본여건이 해결되지 않은 한, 우리 대학의 미래,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진리 탐구를 통한 새로운 지식의 창출은 오랜 시간의 힘겨운 인내와 지적 훈련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대학은 바로 이런 연구에 의해 발전합니다. 창의력있는 인재 배출은 훌륭한 연구성과의 부산물이기에 대학의 연구는 더욱 큰 의미를 갖습니다.

저는 순수학문분야의 아카데미즘(academism)과 응용학문분야의 프로페셔널리즘(professionalism)이 연구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두 분야를 조화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남북간의 교류와 통일한국에 대비한 연구집단을 적극 육성하여, 민족 동질성 회복에 대학이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서울대학교는 연구성과의 측면에서 국내 무대로부터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교수 증원 및 연구 기반시설의 구축이 시급합니다. 아울러 이제는 대학안에서 선의의 경쟁을 촉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가 21세기에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치열한 내부경쟁을 통한 가치창출이 있어야 합니다. 공정한 규칙에 의한 경쟁은 아름다운 것이며, 경쟁이 없는 사회는 안일한 타성 때문에 도태되고 만다는 것을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것은 현재를 충실하게 살고 있지 않는 것이며, 이는 이미 경쟁에서 낙오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임기 전반부에 20세기를 마감하고 후반부에는 21세기를 맞이할 총장으로서, 서울대학교의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고 참된 변화와 힘찬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화와 도약은 오직 전력투구(全力投球)가 있어야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항상 가슴에 담아두겠습니다.

1998년 11월 24일
서울대학교 총장 李基俊

문화단신

新刊

■ 국제회계와 신용평가실무
—卞重錫 著

한국산업은행 卞重錫(64년 商大卒)부장이 구조조정시대에 변화하는 국제회계의 흐름을 파악하고, 각 경제주체들이 선진적인 신용평가기법에 의한 국제적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선보였다.

실제 사례중심의 기업가치평가 실무지침서로써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회계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조세통람사刊·값25,000원〉

■ 엄마의 보석함
—成百燁 著

成百燁(73년 師大卒)동문이 딸에게 들려주는 엄마의 인생이야기가 담긴 시집을 펴냈다.

1백여편의 시들은 경제의 어려움으로 흔들리고 있는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작품들이다. 〈달과 꿈刊·값6,000원〉

公演

■ 최은진 피아노독주회
—12월16일 대구어린이회관

현재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박사과정에 있는 최은진(95년 音大卒)동문이 대구 어린이회관 꾀꼬리극장에서 피아노독주회를 갖는다.

음대동창회, 맨하탄음대동창회 후원으로 개최되는 이번 공연에서 최동문은 하이든, 브람스, 프로코피에프의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 053-255-3245)

■ 서울챔버앙상블
—12월 27일 예술의 전당

서울챔버앙상블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金準次(63년 音大入·피아니스트)동문이 金玲美(85년 音大卒·플루티스트)동문 등과 함께 제14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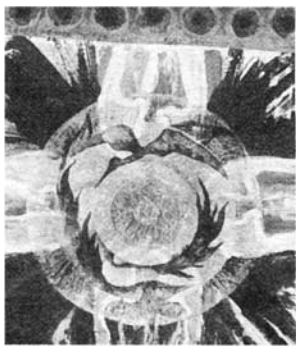
이날 연주회에서는 베버, 드보르자크, 사라사테, 슈베르트 등의 작품을 공연한다.

(공연문의 : 세실예술기획 253-6295)

展示

■ 李珉柱 개인전
—12월 18일 ~ 23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화가 李珉柱(80년 美大卒)동문이 동숭동 문예진흥원 미술회관에서 「共鳴」이란 주제로 제12회 개인전을 갖는다.



「공명 I」 130×140cm

〈정리= 安興燮기자〉

동문의 소리

골프, 다시 생각해 볼 때다

골프의 발생지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세인 앤드류스 골프코스를 가본 사람은 보잘것 없고 허스름한 풍경에 실망해버린다. 해변가 모래언덕에 잡초가 무성하고 잔디도 엉망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세계 유명한 골프대회를 치른다. 골프는 이러한 불모지에서 생겼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일본식 골프는 생성문화가 너무나도 왜곡되어 번졌다. 여유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운동」이 되었고 그래서 코스는 패어웨이마저 잔디를 심어 손이 많이 가야하고 돈이 많이 든다. 클럽하우스의 호화는 극치를 이룬다.

직장에서 은퇴하는 사람들 중에는 퇴직 후 골프나 마음대로 치며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많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골프를 즐기니 좋기는 좋은 운동인가 보다.

골프장은 만들 때부터 심각한 문제를 던져준다. 골프는 사람들의 위화감을 조성해 국가의 사회통합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고, 좁은 국토를 잠식하며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골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이다.

골프코스를 하나 건설하려면 적어도 30만평쯤의 땅이 필요하다. 서울 근교 용인에만 1백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일개 군에 3천만평이 골프 때문에 없어진 것이다.

생태계와 환경의 파괴는 더욱 심각하다. 골프장의 푸르름은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 골프인들의 즐거운 운동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골프장에는 매년 농사짓는 것보다 3~5배나 되는 수십톤의 각종 제초제, 살균제, 영양제가 뿌려진다. 우리나라의 골프장에 새들이 먹이를 찾아 날아다니는 광경을 보았는가? 벌레가 살 수 없는 잔디에서 맹독성 농약만 마시고 다니는 운동은 건강에도 결코 좋을 것 같지 않다.

골프가 환경에 미치는 해악과 나아가서 사회풍조에 끼치는 영향을 한번쯤 생각해 볼 때이다. **金光植(62년 文理大卒)고려대 연구교수**

「등산대회」 봄·가을 두 번 하자

10월 셋째주 일요일이던가? 춥지도 덥지도 않고 하늘도 맑고 바람까지 상쾌하던 그날.

선·후배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관악산을 오르던 그때. 태생이 강원도라 언제나 산을 오르는 건 즐겁기 그지 없었는데…

신문대학원 총무를 맡은 죄로 「대학원 동문들은 보시는대로 따라오라」는 중차대한(?) 업무를 수행중이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변명코자 한다.

그날 樂山樂水를 힘차게 외치시던 총동창회장의 우렁찬 목소리를 뒤로 하고 李濟薰신문대학원동창회장님과 함께 평소 같으면 감히 내가 상상도 못할 대선배님 몇 분과 정말 오랜만에 신림동 순대빌딩을 찾았다.

『왜 우리보다 후발로 설립된 Y대, K대, J대 등의 언론대학원은 그대로 있는데 서울대학교는 있는 대학원도 없애는지…』『맞아요, 그건 말이 안됩니다. 서울대가 대학원 중심체제로 가더라도 대학원 신문학과는 그대로 두고 언론대학원이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언론인들의 재교육을 그 어느 대학보다 우수 인력을 지닌 서울대가 맡아야지…. 다른 대학은 언론인들을 잘도 활용하는데 서울대는…』

산을 오르내릴 땐 세상사는 선배얘기가 그렇게도 구수하게 느껴지더니만, 소주집에서의 대화는 또 이렇게도 힘을 불끈 솟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서울대총동창회의 관악산 등산대회를 봄, 가을로 두 번 하면 어떤가? **南善顯(72년 獸醫大卒·77년 大學院卒) KBS홍보실장**

회비납부 솔선하여 참여하는 동문되자

IMF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정성어린 애정으로 회비를 내주신 동문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理事 : 98년 9월 28일~10월 13일·一般 : 98년 9월 29일~10월 13일〉

회 장 단

▲회장 金在淳= 5백만원
▲상임부회장 鄭宗澤= 50만원
▲부회장 姜敏求= 1백만원
▲부회장 張翼龍= 1백만원

이 사

◇社會科學大學

▲장원석㉘

◇家政大學

▲최규련㉔

◇看護大學

▲백혜자㉘

◇經營大學

▲조규근㉗

◇工科大學

▲강대옥㊾ ▲고유문㊺ ▲김동진㉒ ▲김영경㊻ ▲김인석㊾ ▲김정옥㊿ ▲김주환㊶ ▲김충세㉘ ▲변정근㊼ ▲이계완㊿ ▲이대원㊻ ▲이부섭㊿ ▲이선우㊾ ▲이선일㊺ ▲이윤우㊾ ▲이중홍㊾ ▲전웅진㊿ ▲정범식㊶ ▲조일제㊻ ▲조정희㊽ ▲조항구㊽ ▲허진규㊸ ▲황상일㊹

◇農科大學

▲김영섭㊾ ▲김현구㊾ ▲박정윤㊿ ▲성우경㊼ ▲신한풍㊸ ▲안종운㉓ ▲이병일㊸ ▲장정식㊺

◇文理科大學

▲고봉진㊹ ▲김인규㉓ ▲김형효㊷ ▲박용옥㊾ ▲박준규㊽ ▲손세일㊾ ▲유광일㊽ ▲이규원㊶ ▲이병상㊺ ▲이준희㊺ ▲정세화㊼ ▲정춘택㊽ ▲하두봉㊻ ▲한갑수㊻ ▲한만년㊾ ▲현승일㊻

◇美術大學

▲박대순㊺

◇法科大學

▲강용식㊸ ▲구용완㊾ ▲권종근㊽ ▲김 덕㊽ ▲김길준㊹ ▲김상구㊾ ▲김석기㊽ ▲김영대㊺ ▲김인환㊿ ▲김창엽㊽ ▲김창준㊽ ▲김허남㊷ ▲박부찬㊿ ▲박연철㉒ ▲박영준㊽ ▲백재봉㊾ ▲손선규㊹ ▲송병대㉑ ▲송영식㊾ ▲송영욱㊶ ▲신영무㊼ ▲신현덕㊽ ▲안번일㊺ ▲오유방㊸ ▲원철희㊷ ▲유종해㊹ ▲윤세리㊻ ▲이관표㊾ ▲이광진㊻ ▲이석형㊼ ▲이세작㊼ ▲이재영㊷ ▲이재웅㊺ ▲이창원㊿ ▲이한경㊻ ▲임도빈㊶ ▲임창원㊽ ▲임채홍㊻ ▲장상재㊾ ▲전수철㊼ ▲정대권㊾ ▲조해녕㊺ ▲채태병㊼ ▲최희준㊾ ▲홍학표㊷ ▲황병인㊽ ▲황진호㊻

◇師範大學

▲김낙승㊾ ▲김찬삼㊿ ▲노치숙㊼ ▲목영부㊽ ▲박송자㊼ ▲심상학㊼ ▲양금석㊽ ▲오민수㊻ ▲유덕준㊹ ▲유봉호㊷ ▲이성구㊷ ▲임향순㊹ ▲장성원㊶

◇商科大學

▲김광조㊺ ▲김태두㊻ ▲민병쾌㊻ ▲박영일㊺ ▲박재윤㊸ ▲박정용㊻ ▲서상록㊸ ▲송용상㊿ ▲송주식㊷ ▲신동재㊽ ▲신유근㊹ ▲오한구㊼ ▲윤우진㊺ ▲윤원배㊾ ▲이구용㊺ ▲이기호㊿ ▲이석채㊽ ▲이종연㊻ ▲임조홍㊹ ▲전장원㊿ ▲조문규㊶ ▲차병권㊿ ▲추준석㊶ ▲허남린㊿ ▲홍성인㊿

◇獸醫科大學

▲김조응㊼ ▲정대연㊾

◇藥學大學

▲권선주㊶ ▲김동춘㊾ ▲김영호㊽ ▲김용정㊷ ▲김희중㊸ ▲나명철㊾ ▲이홍석㊷ ▲장학순㊵ ▲정순간㊷ ▲홍우일㊺

◇音樂大學

▲양은희㊵ ▲이성천㊺

◇醫科大學

▲김수신㊵ ▲김영균㊾ ▲김용진㊸ ▲노동두㊵ ▲노만수㊽ ▲박귀원㊷ ▲박창서㊼ ▲서병준㊹ ▲서재학㊸ ▲송창섭㊾ ▲신동휘㊷ ▲이병훈㊻ ▲이상일㊸ ▲이성규㊽ ▲이우용㊶ ▲이태호㊽ ▲임한종㊼ ▲진용한㊼ ▲추연명㊾ ▲한만청㊾ ▲한만희㊸

◇齒科大學

▲구창서㊹ ▲김 성㊻ ▲김병찬㊵ ▲김봉환㊷ ▲김세동㊼ ▲김윤영㊷ ▲김철호㊻ ▲박상균㊸ ▲백성기㊽ ▲서영수㊸ ▲송영호㊵ ▲신일규㊶ ▲양희일㊿ ▲엄필성㊿ ▲윤학영㊽ ▲이재윤㊷ ▲조행작㊿ ▲한응렬㊺ ▲허 택㊼

◇大學院

▲정상철㊾

◇經營大學院

▲김윤택㊿ ▲황길태㊼

◇敎育大學院

▲이범국㊸

◇保健大學院

▲박희서㊾ ▲윤용길㊿

◇司法大學院

▲김용환㊽

◇行政大學院

▲김익영㊽ ▲박용덕㊸ ▲서재근㊹ ▲원병의㊸ ▲이치업㊶ ▲이훈섭㉔ ▲최규학㊺

일 반

◇人文大學

▲강인선㊻ ▲고미영㊽ ▲곽재성㊽ ▲김영길㊾ ▲김태량㊶ ▲문병우㊶ ▲박태영㊽ ▲서형원㊽ ▲송재봉㊾ ▲오병갑㊿ ▲이계성㊻ ▲이광용㊺ ▲이종선㊾ ▲이종헌㊺ ▲임명규㊼ ▲정준모㊻ ▲한정주㊽ ▲함호근㊸ ▲황현길㊾

◇社會科學大學

▲강기동㊽ ▲공선욱㊽ ▲김성열㊿ ▲김소용㊸ ▲김연국㊶ ▲김원호㊻ ▲김진우㊶ ▲김진욱㊷ ▲노정석㊸ ▲노택선㊸ ▲박 경㊺ ▲박흥준㊷ ▲선경래㊿ ▲엄현택㊾ ▲오규택㊶ ▲우국희㊼ ▲유채영㊻ ▲이광오㊾ ▲이덕근㊼ ▲이세용㊷ ▲이은우㊾ ▲이재기㊾ ▲이호준㊿ ▲정은호㊿ ▲최 현㊾ ▲최영훈㊺ ▲표영선㊶ ▲허동호㊾

◇自然科學大學

▲김동건㊻ ▲김상길㊾ ▲김순경㊽ ▲김예녕㊺ ▲박동완㊼ ▲서인실㊺ ▲송세안㊾ ▲이명길㊿ ▲이인규㊻ ▲이정호㊷ ▲이태형㊼ ▲조문성㊾ ▲최승언㊻ ▲함광선㊾

◇家政大學

▲김경덕㊽ ▲김미영㊺ ▲김은희㊸ ▲반영하㊾ ▲손정민㊺ ▲신애리㊸ ▲심수연㊺ ▲안정균㊺ ▲오광숙㊹ ▲유가효㉔ ▲이근영㊼ ▲이영자㊾ ▲이화숙㊶ ▲정성혜㊷ ▲정철희㊻ ▲정태숙㊹ ▲조진희㊹ ▲최윤주㊸ ▲황인경㉔

◇看護大學

▲김경남㉘ ▲김영숙㊺ ▲박인례㊾ ▲정명자㊿ ▲천미혜㊼

◇經營大學

▲권성휘㊸ ▲김경록㉔ ▲김동환㊻ ▲김상욱㊶ ▲김영돈㊶ ▲김용건㊾ ▲김용범㊸ ▲김운호㊷ ▲김윤수㊺ ▲남태현㉔ ▲마남진㉔ ▲박광민㊿ ▲박기상㊿ ▲박병직㊸ ▲박용만㉘ ▲박찬호㊸ ▲박현철㊸ ▲박형봉㊸ ▲양현근㊾ ▲예정현㊾ ▲오민철㊿ ▲윤택현㉘ ▲이기엽㊷ ▲이인범㊸ ▲이재일㊼ ▲이재형㊺ ▲이재홍㊽ ▲이철재㊿ ▲이태영㊸ ▲이택수㉘ ▲이평재㊻ ▲임진환㊿ ▲조만희㉔ ▲최성범㊷ ▲최재무㊸ ▲하형석㊸ ▲한갑희㊷ ▲한종철㊸

◇工科大學

▲강위훈㊺ ▲강종렬㊾ ▲강태윤㊾ ▲고근희㊽ ▲고영남㊼ ▲곽태진㊾ ▲권수원㊶ ▲권태식㊽ ▲김건호㊻ ▲김경식㊷ ▲김남준㊸ ▲김대식㊷ ▲김대현㉔ ▲김덕우㊺ ▲김석근㊼ ▲김성우㊼ ▲김영웅㉔ ▲김용희㊻ ▲김유간㉔ ▲김임수㊼ ▲김장연㊿ ▲김재범㉘ ▲김재섭㊸ ▲김정덕㊻ ▲김종각㊺ ▲김종식㊹ ▲김종인㊻ ▲김창두㊻ ▲김춘식㊶ ▲김택중㊽ ▲김택진㊾ ▲김학용㊶ ▲김헌영㊺ ▲김현진㊿ ▲김현진㊺ ▲김형준㊷ ▲김홍연㉔ ▲김희준㊿ ▲나형주㊼ ▲남궁정㊻ ▲남순열㊻ ▲문종신㊿ ▲민위식㊸ ▲박명준㊼ ▲박민서㊸ ▲박상준㊻ ▲박성대㊽ ▲박성호㊻ ▲박세형㊼ ▲박이관㊷ ▲박하영㊾ ▲방극렬㊹ ▲배동환㊸ ▲백영진㊺ ▲변재완㊸ ▲설학인㊼ ▲성낙진㊿ ▲손인호㊾ ▲손정원㉔ ▲송상헌㊻ ▲신동헌㊾ ▲신동효㊼ ▲심흥주㊽ ▲안광균㊿ ▲안동섭㊸ ▲안봉걸㊶ ▲오상윤㊷ ▲오웅석㊹ ▲오태명㊶ ▲우상복㊾ ▲우상선㊷ ▲우제걸㊺ ▲우준석㊿ ▲유건환㊷ ▲유일상㊼ ▲유재운㊷ ▲윤영빈㊺ ▲이 해㊻ ▲이광인㊷ ▲이기완㊼ ▲이낙주㊵ ▲이대우㊽ ▲이동수㊻ ▲이동윤㊶ ▲이동윤㉔ ▲이범익㊽ ▲이병효㊼ ▲이상구㊺ ▲이상희㊷ ▲이우윤㊷ ▲이원도㊺ ▲이종렬㊵ ▲이종훈㊸ ▲이중호㊷ ▲이찬홍㊾ ▲이창순㊽ ▲이채현㊻ ▲이충화㊽ ▲임영호㊹ ▲임인건㊶ ▲임재열㊻ ▲장기인㊳ ▲장동립㊹ ▲장봉식㊻ ▲장세일㊸ ▲장재언㊽ ▲정석우㊺ ▲정신순㊸ ▲정한모㊵ ▲정해종㊿ ▲정형근㊵ ▲제갈성㊾ ▲조대희㊷ ▲조득호㊶ ▲조원상㊹ ▲주동건㊶ ▲지태용㊺ ▲천유식㊾ ▲최경진㊸ ▲최규하㊽ ▲최상호㊾ ▲최영명㊻ ▲최재권㊾ ▲최재웅㊾ ▲최희장㊹ ▲태두호㊸ ▲하홍길㊾ ▲한권훈㊷ ▲한두옥㊾ ▲한선화㊹ ▲한승우㊸ ▲허성구㊸ ▲허종태㉔ ▲황정태㉔ ▲황종렬㊸ ▲황철중㊶ ▲황희철㊷

◇農科大學

▲강인식㊸ ▲김 준㊾ ▲김기수㉔ ▲김남혁㊼ ▲김동호㊺ ▲김민수㊼ ▲김병만㊾ ▲김성자㊼ ▲김용화㉔ ▲김재우㊸ ▲김정혜㊺ ▲김형욱㊼ ▲남완우㊷ ▲문희숙㊻ ▲박 호㊸ ▲박영문㊽ ▲박재현㊸ ▲박주현㊾ ▲백운해㊷ ▲설동섭㊼ ▲손양덕㊶ ▲송기언㊿ ▲송재정㊽ ▲신상혁㊷ ▲유성곤㊼ ▲유원석㊺ ▲윤여창㊾ ▲윤영기㊿ ▲이규형㊹ ▲이균희㊿ ▲이도경㊸ ▲이양희㊾ ▲이영대㊽ ▲이영호㊾ ▲이종호㊾ ▲이종호㊻ ▲임봉주㊾ ▲정돈철㊷ ▲정학상㊼ ▲조국광㊾ ▲최동준㊼ ▲최연호㊽ ▲한성욱㊶ ▲현중섭㊾ ▲홍규현㊸ ▲황철호㊽

◇文理科大學

▲강신혁㊸ ▲강창모㊸ ▲강필종㊸ ▲곽종흠㊽ ▲구병삭㊿ ▲김건중㊿ ▲김경진㊺ ▲김관식㊷ ▲김남진㊺ ▲김동학㊼ ▲김만옥㊸ ▲김병진㊸ ▲김봉영㊷ ▲김세기㊿ ▲김수학㊼ ▲김영동㊽ ▲김용직㊽ ▲김용진㊸ ▲김종철㊽ ▲김진원㊻ ▲김판우㊾ ▲남궁견㊻ ▲문희화㊿ ▲박명기㊸ ▲박병언㊺ ▲박순웅㊺ ▲박영애㊿ ▲박정미㊻ ▲박종영㊺ ▲박태남㊶ ▲서한창㊷ ▲손복조㊹ ▲신건수㊺ ▲신규철㊼ ▲신용대㊹ ▲심경보㊺ ▲안정수㊻ ▲오연천㊹ ▲원인기㊿ ▲원황상㊻ ▲유구영㊸ ▲유평근㊺ ▲윤종국㊹ ▲이구철㊾ ▲이규성㊸ ▲이동섭㊹ ▲이문규㊼ ▲이상직㊿ ▲이수영㊽ ▲이우석㊼ ▲이우용㊽ ▲이정복㊽ ▲이종한㊾ ▲이천복㊶ ▲이해창㊼ ▲임 홍㊷ ▲정일영㊵ ▲정제우㊶ ▲정지영㊶ ▲정행원㊸ ▲주영길㊶ ▲채선기㊾ ▲채희경㊼ ▲황봉운㊷

◇美術大學

▲강명희㊼ ▲강인선㊼ ▲김근배㊿ ▲김선희㊷ ▲김재훈㊻ ▲김현실㊿ ▲박미화㊾ ▲백순실㊹ ▲송복희㊽ ▲이동휘㊻ ▲이종수㊸ ▲이지희㊹ ▲임명옥㊺ ▲장동광㊽ ▲장용주㊸

▲정병구⑦⓪ ▲정옥란⑥⑥ ▲정종미⑧⓪ ▲한혜경⑦⑨

◇法科大學

▲강승준⑥⑨ ▲경우근⑦① ▲권영길⑦⑥ ▲김수철⑥① ▲김종호⑧④ ▲김중성⑧⑤ ▲김학수⑥⑨ ▲김흥걸⑦④ ▲김흥면⑦⑥ ▲나경식⑥⑤ ▲나풍운⑥⑧ ▲노정일⑧② ▲도재성⑦⓪ ▲동현철⑧④ ▲류순현⑧⑥ ▲문효남⑦⑧ ▲박낙영⑧⑥ ▲박무용⑥⑧ ▲박승준⑧④ ▲박형서⑤⑧ ▲성순제⑦⓪ ▲손종대⑦⓪ ▲신삼섭⑦⑧ ▲신장수⑧⑥ ▲안재영⑦④ ▲안정환⑥③ ▲안홍열⑦⑨ ▲양명조⑦③ ▲양승국⑧① ▲양재환⑦⑥ ▲예범수⑨④ ▲예상해⑤⑧ ▲오오현⑥⑥ ▲원용복⑦⑤ ▲유태길⑤⑦ ▲윤재승⑧⑤ ▲윤태호⑧⑦ ▲윤한종⑥⑨ ▲이세형⑦③ ▲이영학⑥② ▲이용수⑦① ▲이진성⑦⑧ ▲이진호⑥⑦ ▲임종섭⑦⑤ ▲임태성⑦⑥ ▲장윤기⑦③ ▲정경영⑧③ ▲정덕모⑦⑨ ▲정영일⑦⑦ ▲정진국⑦④ ▲조동섭⑧① ▲조민현⑧⑤ ▲주민회⑤⑦ ▲차동천⑥⑨ ▲최규범⑥⑤ ▲한창영⑥⑧

◇師範大學

▲강길선⑤⑦ ▲강병용⑧⑥ ▲강신우⑧② ▲강은숙⑧⑤ ▲강희정⑨③ ▲고기만⑦③ ▲고병교⑦⑥ ▲고태흠⑤⑤ ▲구진희⑧⑧ ▲구향모⑧⑦ ▲국철호⑧① ▲권한수⑦⑨ ▲김 아⑤② ▲김기정⑧⑧ ▲김남주⑧⑦ ▲김동학⑤⑧ ▲김병애⑦⓪ ▲김보호⑧⑦ ▲김상일⑥⑤ ▲김선양⑤⑦ ▲김성룡⑧③

「관악홀 의자 실명제」에 적극 동참을!

본회는 지난 95년 9월부터 동창회관 관악홀을 보다 나은 분위기로 조성하기 위해 동문들에게 각 10만원씩을 출연받아 고급 의자를 제작, 의자 뒷부분에 출연자의 성명과 출신대학을 명기하는 「관악홀 의자 실명제」를 실시해왔습니다.

현재까지 3백석의 의자가운데 2백72석은 동문 여러분의 성원으로 마련됐습니다. 서울대 동창회관이 서울대인의 진정한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나머지 28석의 의자를 제작하는데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1월 출연자 명단 (가나다순)

△朴南基(84년 師大卒) △裵文煥(65년 行大院卒)
△李灌祐(87년 醫大卒) △李英子(69년 家政大卒)
△李柱榮(74년 法大卒) △李仁基(66년 文理大卒)
△朱惠璟(72년 文理大卒) △許 瑛(74년 看護大卒)
△洪性煥(82년 醫大卒) △小武徹郎(45년 京城藥專卒)

도움주실 동문은 온라인 입금 후 전화연락 바랍니다. 온라인 : 조흥은행 397-03-002804(김재순) 전화 : (02)702-2233

"동창회 신용카드, 지금 신청하세요"

〈발급기간 : 98년 9월 1일~10월 31일〉

개 인

◇人文大學

▲강 헌⑧⑦ ▲이종필⑨④

◇自然科學大學

▲이일웅⑧⑦

◇經營大學

▲강두골⑧⑨ ▲김동환⑨⑥

◇工科大學

▲김재현⑧⑥ ▲여왕모⑧⑧ ▲이민화⑦⑥

◇農科大學

▲윤순찬⑧⑦ ▲장인권⑧⑧ ▲정명래⑦⑧

◇美術大學

▲장승욱⑨④

◇法科大學

▲김정득⑥①

◇獸醫科大學

▲김경환⑧④ ▲석세조⑤④

◇醫科大學

▲윤대영⑥⑨

◇大學院

▲박용훈⑨⑦

◇經營大學院

▲최원영⑨⑤

◇環境大學院

▲정찬옥⑨②

◇최고경영자과정

▲주상길③⑧

◇최고산업전략과정

▲김성근①⑧

◇고급금융과정

▲이정호②

◇도시환경고위정책과정

▲석창덕①

◇가정간호수습과정

▲김은미⑤

▲김영철⑤⑥ ▲김용광⑦③ ▲김용복⑥① ▲김원재⑦③ ▲김재식⑨③ ▲김종규⑥⑥ ▲김종찬⑨⑤ ▲김진경⑧⑦ ▲김진탁⑥⑤ ▲김창철⑥⑤ ▲김효진⑧⑨ ▲김후란⑤③ ▲김흥태⑦⑦ ▲나민주⑧⑨ ▲나병삼⑥⑧ ▲노옥섭⑦⓪ ▲노은옥⑨② ▲노재영⑨⑤ ▲노희방⑦⑦ ▲문상득⑤③ ▲박경윤⑦③ ▲박규홍⑦③ ▲박승용⑧⓪ ▲박영주⑧⑥ ▲박영희⑤⑧ ▲박재근⑧③ ▲박정란⑧③ ▲박지모⑦⑦ ▲박지훈⑦③ ▲박희택⑦③ ▲변희주⑦④ ▲서인호⑧⑤ ▲손재순⑦③ ▲신정옥⑥⑤ ▲신희명⑤④ ▲양국보⑧⑦ ▲유시락⑥① ▲유완수⑥⓪ ▲유준희⑧⑤ ▲윤근성⑦⑥ ▲윤성희⑧⑦ ▲윤익모⑥⑥ ▲이건세⑥⑨ ▲이광용⑥③ ▲이국형⑧③ ▲이동영⑧⑦ ▲이미자⑥② ▲이방렬⑥⑨ ▲이범종⑧② ▲이시훈⑥① ▲이원호⑦⑤ ▲이인수⑤⑧ ▲이정선⑦⑦ ▲이지홍⑤⑥ ▲이찬근⑦④ ▲이태웅⑦⑤ ▲임인재⑥② ▲임홍선⑤⑦ ▲장명숙⑦② ▲장준호⑤⑥ ▲장호민⑧⑥ ▲전진하⑨④ ▲정강주⑦④ ▲정무성⑥④ ▲정상구⑦⑦ ▲정소영⑧⑦ ▲정호영⑦① ▲제귀연⑨④ ▲조계석⑥⑨ ▲조병두⑥⑤ ▲조숙상⑦① ▲채관석⑧⑧ ▲최기숙⑥⑨ ▲최범선⑨⓪ ▲최병진⑥⓪ ▲최병호⑥① ▲최성식⑦⑦ ▲최양자⑥⑧ ▲최익규⑤⑥ ▲최준호⑧⑤ ▲최흥민⑤③ ▲태의경⑧⑨ ▲한갑수⑧③ ▲한상규⑦⑥ ▲허덕수⑥⑦ ▲허진란⑧⑦ ▲허혜자⑧⑧ ▲홍보업⑥⓪

◇商科大學

▲강용운⑥⑤ ▲권중국⑥⑧ ▲권현두⑥⑥ ▲김길환⑥⑤ ▲김봉년⑥④ ▲김영광⑦① ▲김은중⑦⑤ ▲김장환⑤⑥ ▲김형갑⑤② ▲노정욱⑤② ▲박용묵⑥⑨ ▲박정하⑥⑨ ▲박태일⑥⑥ ▲서연호⑤⑥ ▲성낙후⑥⑧ ▲성용환⑥③ ▲성욱기⑤⑦ ▲손경수⑥⓪ ▲손재환⑦③ ▲신찬수⑥① ▲유병룡⑥① ▲유석기⑥① ▲유수길⑥⑥ ▲윤석하⑥⑧ ▲윤석한④⓪ ▲이강순⑤⑧ ▲이길호⑤⑨ ▲이동훈⑤⑨ ▲이병세④⑧ ▲이연구⑤⑦ ▲이종백⑦③ ▲이춘원⑦① ▲이호철⑥① ▲임진택⑦③ ▲장세원⑥② ▲장태영④⑨ ▲정호용⑤⑥ ▲정환구⑥① ▲최은호⑦③ ▲한상동④②

◇獸醫科大學

▲김영신⑤⑨ ▲김인천⑧⑧ ▲김종대⑤⑤ ▲김관기⑧⑤ ▲남상헌⑦③ ▲방극승⑥⑧ ▲서창우⑥⑦ ▲오순민⑧⑧ ▲이창업⑤③ ▲이형우⑤⑤ ▲정문교⑥① ▲정의조⑥⑧ ▲조성률⑨⑤ ▲조형기⑤⑧ ▲최명구⑦③ ▲한정윤⑥④

◇藥學大學

▲강순철⑤⑨ ▲고정애⑨① ▲공영주⑥③ ▲권희안⑧④ ▲김봉자⑦③ ▲김승화⑧③ ▲박세진④⑧ ▲박은영⑧④ ▲손경석⑦⑨ ▲신현우④① ▲이나경⑧③ ▲이수입⑦⑨ ▲이종홍⑥⓪ ▲이춘희⑥⑨ ▲장덕기⑧⓪ ▲전정숙⑥① ▲정경훈⑦⑧ ▲정구경⑤⑨ ▲정문상⑦⓪ ▲정정희⑥② ▲주길택⑥⑤ ▲최경순⑥⓪ ▲최상대⑦⑨ ▲추영구⑤⓪ ▲홍성한⑧⓪

◇音樂大學

▲강정구⑥⑨ ▲고원주⑨⑥ ▲곽정선⑨④ ▲구본희⑦② ▲김상철⑧⑥ ▲김원식⑤⑥ ▲김유미⑧⑨ ▲김주남⑥⑤ ▲김지은⑧⑦ ▲김지훈⑨⓪ ▲김향금⑧① ▲김형순⑦② ▲김혜선⑧⑥ ▲김혜숙⑥⑨ ▲문호근⑦① ▲박수경⑧⑧ ▲박용호⑧⑦ ▲박원후⑧③ ▲박인옥⑥⑨ ▲박정수⑥⑥ ▲박희정⑧⑨ ▲배경희⑦⑨ ▲서한범⑥⑨ ▲서희정⑧④ ▲설용애⑦① ▲신계휴⑥③ ▲신영희⑦② ▲신향민⑧⑤ ▲신효철⑦③ ▲안소정⑦⑨ ▲어수희⑧⑨ ▲오광호⑦④ ▲원유란⑦⑤ ▲윤문숙⑧④ ▲이기진⑦⑧ ▲이남옥⑧② ▲이미선⑧⑥ ▲이민수⑧⑧ ▲이상호⑧⑥ ▲이선영⑨⓪ ▲이주연⑨⓪ ▲이지영⑧⑧ ▲이현우⑥⑤ ▲이희주⑦⑤ ▲이희철⑥⑤ ▲임정선⑥① ▲임정희⑧⑥ ▲장성덕⑥④ ▲전민숙⑦⓪ ▲정미연⑧① ▲주영진⑨① ▲최수은⑧⑧ ▲최영숙⑦⑧ ▲최인배⑦⑦ ▲한민숙⑥⑦

◇醫科大學

▲강길전⑥⑦ ▲강병문⑧⓪ ▲강승주⑧④ ▲권준수⑧④ ▲기만덕⑧④ ▲김동집⑤⑧ ▲김범용⑤③ ▲김원홍⑧⑤ ▲김주성⑧⑦ ▲김준열⑧② ▲김진하④⑦ ▲김진호⑧① ▲김창엽⑧④ ▲김태진⑧⑧ ▲김현태⑧④ ▲김흥태⑧① ▲김희중⑧⓪ ▲노경운⑧⑤ ▲문명선⑤⑧ ▲박동현⑦⑥ ▲박영근⑧⑤ ▲박우윤⑧④ ▲박이철④③ ▲박제경④⑨ ▲서경석⑧④ ▲서국희⑧⑤ ▲송인배⑧⓪ ▲안석환⑧① ▲양석진⑧⑤ ▲엄태현⑨⓪ ▲오영선⑧① ▲원영천⑧⓪ ▲유영상⑦⑨ ▲유재호⑧⑤ ▲이 열⑧① ▲이도희⑧④ ▲이명복③⑨ ▲이명순⑧② ▲이무훈⑧① ▲이용일⑥⓪ ▲이용찬⑧⑨ ▲이재호⑧⑦ ▲이종욱⑥③ ▲이태정⑦④ ▲이혁표⑧⑧ ▲이홍기⑧① ▲이희자⑤⑤ ▲정문성⑧④ ▲정영훈⑦⑨ ▲정진우④⑨ ▲정현채⑧⓪ ▲조상록⑧④ ▲조종태⑧④ ▲조효남⑧④ ▲차건원⑧② ▲채인호⑧⑧ ▲최동호⑧⑤ ▲하충건⑧② ▲한달선⑥④ ▲황도영⑧③

◇齒科大學

▲김만석⑥⓪ ▲김민수⑥⓪ ▲김병환⑤⓪ ▲김상철⑥③ ▲김석환⑦② ▲김선해⑧⓪ ▲김원표⑦④ ▲김정민⑧⑨ ▲김정일⑦⑥ ▲김진수⑧④ ▲김태영⑧⑦ ▲김효순⑦⑤ ▲도정욱⑧⓪ ▲문제백⑦① ▲문형주⑧⑤ ▲박기용⑧③ ▲박길용⑧⓪ ▲박병덕⑥⑥ ▲박시우⑤⑧ ▲박재간⑧⑤ ▲백승학⑧⑧ ▲서정희⑤⑧ ▲신문혁⑥⑨ ▲우건희⑦③ ▲우광균⑤⑥ ▲윤태석⑤⑨ ▲이삼선⑨⓪ ▲이수길⑦④ ▲이해준⑧③ ▲임병서④⑤ ▲장도훈⑦⑥ ▲장동재⑦⑨ ▲정대현⑦⑥ ▲정용호⑦① ▲조문주⑧⑨ ▲조한준⑤⑦ ▲차혜영⑥⑦ ▲최낙준⑦⑧ ▲최동철⑦④ ▲최한업⑦③ ▲허남기⑧③ ▲황규동⑦①

◇大學院

▲박옥줄⑤② ▲박의열⑤⑧ ▲박진수⑨⑧ ▲안수영⑧⑥ ▲오문성⑧⑥ ▲유정준⑧⑤ ▲이남형⑦③ ▲이범수⑧⑤ ▲이석륜⑤⑥ ▲전정순⑧⑦ ▲조남국⑧① ▲홍종각⑧⑥

◇經營大學院

▲김종필⑦⑤ ▲송희준⑨⑥ ▲이영일⑦②

◇保健大學院

▲박승기⑧④ ▲서광석⑧① ▲서석권⑥⑧ ▲이종헌⑥⑧ ▲이형진⑧⑦ ▲정효순⑨①

◇新聞大學院

▲강용우⑦③ ▲현승일⑦④

◇行政大學院

▲노선호⑥⑧ ▲송태준⑦⑧ ▲이성기⑥⑤ ▲임세환⑦① ▲정영섭⑥⑧

◇環境大學院

▲임영호⑧⑧ ▲전의찬⑧⑦ ▲최강림⑨③ ▲하동만⑦⑤ ▲한윤희⑧⑦

◇최고경영자과정

▲곽진훈①⑧ ▲김명규②④ ▲김수환①⑤ ▲박희오④④ ▲배광우②④ ▲변정수④⓪ ▲서준모①⑦ ▲송승효④③ ▲신동오②⑧ ▲유시종①⑨ ▲윤병호⑤ ▲이경태③① ▲이관표⑨ ▲이방수⑧⑦ ▲이병성② ▲이병정⑧ ▲이석용②④ ▲이은식②⑦ ▲전석근③③ ▲전창열③⑨ ▲정국성④④ ▲정의우④③ ▲정태일④⓪ ▲최광률⑦ ▲한규범④② ▲한석윤⑤

◇최고산업전략과정

▲고영학①⑧ ▲김창희①⑨ ▲김춘진①④ ▲문규칠①⑧ ▲박강식①⑤ ▲박명남①① ▲박창민①⑨ ▲박평서①① ▲서영복①⑨ ▲유재수①④ ▲윤소원①② ▲이찬경①⑤ ▲임병훈①⑨ ▲조규호⑥ ▲조인형①③ ▲하광운①⑦ ▲홍승철①⑦ ▲황교선⑤ ▲황남석①①

◇국가정책과정

▲김상태④⑤ ▲김재홍①⓪ ▲김정숙②⑦ ▲김창환②⑦ ▲노정기③⑥ ▲문상호②③ ▲박인호④③ ▲서용선④⑤ ▲성백관③⓪ ▲손경희①⑤ ▲이강연②⑦ ▲이동호③② ▲이영숙①⑦ ▲이재돈②⑧ ▲최정길④④ ▲최흥준④

◇고급금융과정

▲김기현② ▲김창경⑥ ▲문흥식⑤ ▲배중길③ ▲장영찬⑧ ▲정원봉④ ▲조현석⑪ ▲허윤도①

◇공기업고급경영과정

▲곽현식③ ▲김경섭② ▲김교열④ ▲김동훈④ ▲김복승③ ▲김사운③ ▲김성대④ ▲김형락③ ▲도창환① ▲라일영④ ▲박대호④ ▲박승호③ ▲박현진① ▲배성준③ ▲서영원④ ▲선동우④ ▲손일곤③ ▲안무경④ ▲오득환① ▲오흥재① ▲이시룡② ▲이영세④ ▲이우용③ ▲이응진② ▲이제배③ ▲이충진② ▲장성호① ▲전관석① ▲전영호③ ▲정병수④ ▲정인택③ ▲정창수③ ▲정해수① ▲조재승③ ▲채성석② ▲최길영② ▲최출락② ▲한길호④ ▲함춘조② ▲허복일④ ▲홍기만③ ▲홍순진④ ▲황경태③

◇도시환경고위정책과정

▲김광두③ ▲김진오③ ▲이영길③ ▲이창근① ▲최상석②

◇가정간호수습과정

▲김영숙④ ▲김은미⑤ ▲노분영② ▲도경숙② ▲민상금① ▲백미정⑤ ▲백성희⑤ ▲유영숙⑤ ▲윤인자④ ▲이춘제⑤ ▲최향미④

지 부

◇면목고교

▲김대희 ▲김문규 ▲김선옥 ▲김진수 ▲남궁환 ▲노찬옥 ▲문상익 ▲박미성 ▲박영식 ▲서인환 ▲안희익 ▲원대식 ▲유병석 ▲이규량 ▲이원숙 ▲정미숙 ▲조영호 ▲한형립 ▲홍학순

월 계: 40,630,000
누 계:465,937,620